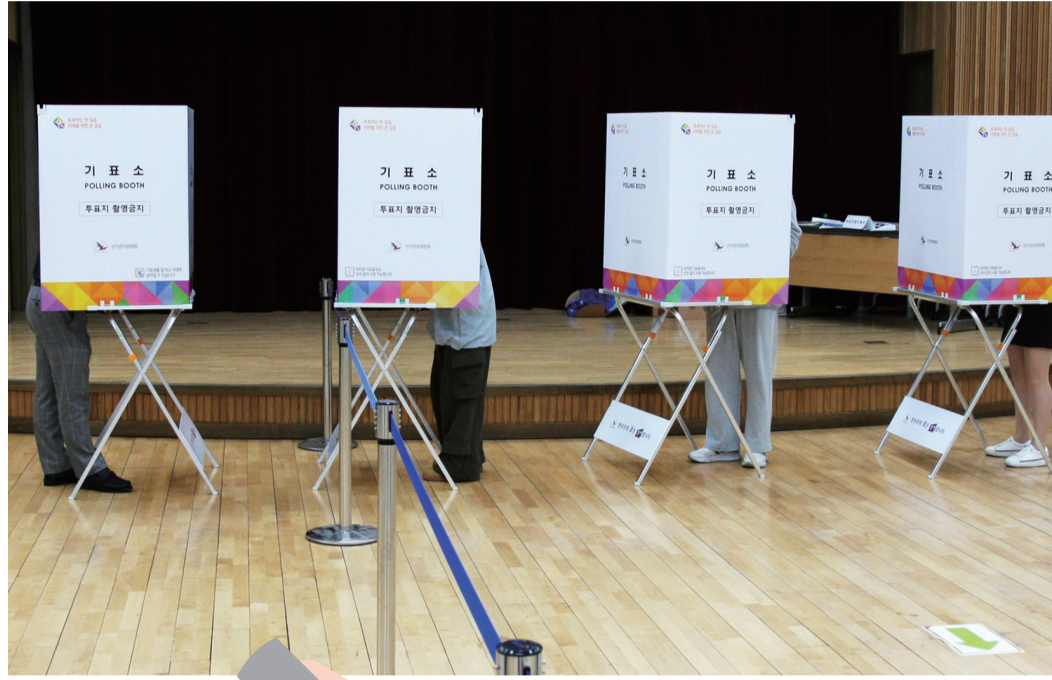


22대 총선 화성시민의 선택은 누구?

사전투표 완료, 최초 4개 선거구 '주목'



5일 화성시병 선거구 사전투표 모습. (사진 신홍식 기자)



5-6일 사전투표를 시작으로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화성시민의 선택이 시작됐다. 이번 총선에서 화성시는 처음으로 4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한다.

화성시갑 선거구는 서부권과 남부권 우정읍, 향남읍, 남양읍, 매송면, 비봉면, 마도면, 송산면, 서신

면, 팔탄면, 장안면, 양감면, 정남면, 새솔동 총 13개 지역이다. 서울시민만큼 면적을 자랑하며, 도농복합도시로서 주민들의 요구도 다양하다.

3선의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현 의원에 맞서 국민의힘 홍형선 전 국회 사무차장이 양자대결을 펼친다. 화성갑은 전통적 보수 우세지역이었지만 21대 총선에서 비례 송옥주 의원이 승리한 바 있다.

화성시를 선거구는 동탄4·5·7·8·9동 동탄2신도시 5개 지역이다. 화성시 갑·을·병 체제에서 모두 진보정당이 승리를 거뒀다. 더불어민주당 공영운 전 현대자동차 사장, 국민의힘 한정민 전 삼성전자 연구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자웅을 겨룬다. 이들은 모두 화성에서는 신인이다.

화성시병 선거구는 동부권 기배동, 병점1·2동, 봉담읍, 진안동, 화산동 6개 지역이다. 지역에서 경기도의원을 역임한 더불어민주당 권철승 현 의원이 3선에 도전한다. 여기에 국민의힘 최영근 전 화성시장이 나서며 중량급 대결을 펼친다. 무소속으로 신상철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 상임회장도 도전장을 내밀었다.

신설 화성시정 선거구는 동탄1·2·3·5동, 반월동 5개 지역이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비례),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강남을), 개혁신당 이원욱 의원(화성을), 이준석 공인행정사 4인이 힘을 겨룬다. 현역 국회의원만 3명이 공천 받은 만큼 치열한 대결이 예상된다.

서민구 기자 news@ihnews.com

100만 대도시 위한 최대 조직개편 단행



화성시의회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 원안 통과

3실국 직급 상향, 5국 신설, 1단·2사업소 폐지

화성시의회가 2일 '제230회 임시회'를 열고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화성시에 대대적 조직개편이 이뤄진다.

이번 조직개편안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걸맞은 기구를 조성해 신규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실, 국 단위 대규모 조직개편이 이뤄진다. 본청에서는 현재 4급인 민생경제산업국과 도시주택국의 직급이 상향돼 3·4급인 기업투자실과 도시정책실로 명칭이 각각 바뀐다. 시의회에서는 현재 4급인 의회사무국이 3·4급으로 직급이 상향된다.

국 단위 개편도 이뤄져, 4급 직급의 5개 국이 신설되고 1단, 2사업소는 폐지된다. 재정국, 농정해양국, 안전건설국, 주택국, 환경국이 신설되며, 교통사업단과 지역개발사업소, 환경사업소는 폐지된다.

4국은 명칭이 변경된다. 자치행정국은 소통행정국으로, 여가문화교육국은 문화교육국으로, 시민복지국은 복지국으로, 교통도로국은 교통국으로 각각 이름이 바뀐다.

4·5급 직급도 신설되며 일부 명칭도 변경된다. 현행 5급인 감사관은 4·5급 감사관으로, 역시 5급인 정책기획과와 도시정책과는 4·5급인 정책기획관과 도시정책관으로 변경된다.

5급 과 단위 개편도 이뤄진다. 본청과 사업소에서 AI전략과, 특례시추진단, 문화시설과, 공원녹지사업소 보타낙가든추진단, 동탄출장소 환경위생과, 시의회에서 의정담당관이 각각 신설된다.

폐지 및 통합되는 과는 3개다. 소통혁신담당관이 폐지되고 자치행정과와 합쳐 소통자치과로 통합되고 첨단교통과는 폐지된다. 또 지역개발사업소 도시재생과는 폐지되고 지역개발과와 합쳐 도시정책실 도시개발과로 통합된다.

명칭변경은 18개 과다. 도시디자인과가 도시기획단으로, 균형발전담당관이 균형발전과로, 경제정책과가 지역경제과로, 지역개발과가 도시개발과로, 자치행정과가 소통자치과로, 민원봉사과가 민원행정과로, 축산과가 축산정책과로, 반려가족과가 동물보호과로, 교통행정과가 교통정책과로, 버스혁신과가 대중교통과로, 교통지도과가 주차교통과로, 차량등록사업소가 차량등록과로, 주택과가 주택정책과로, 공동주택관리과가 주택관리과로, 건축허가과가 건축정책과로, 기후환경과가 환경정책과로, 동부출장소 시민봉사과가 민원토지과로, 동탄출장소 복지위생과가 사회복지과로 각각 변경된다.

팀 단위 개편도 대규모로 이뤄진다. 도시기획단 도시기획, AI전략과 AI전략, AI전략과 모빌리티전략, AI전략과 공공드론, 지역경제과 지역경제, 소통자치과 민간협력지원, 특례시추진단 특례시추진, 특례시추진단 일반구지원, 특례시추진단 일반구추진, 민원행정과 여권, 문화유산과 독립기념관운영, 문화시설과 문화시설기획, 도서관정책과 중앙도서관, 복지정책과 돌봄, 여성다문화과 여성친화, 도로과 민자도로, 맑은물시설과 급수2, 하수와 하수운영, 산림휴양과 가로수, 보타낙가든추진단 보타낙가든기획, 보타낙가든추진단 보타낙가든조성2, 보타낙가든추진단 지역협력, 동탄출장소 환경위생과 환경관리, 동탄출장소 환경위생과 위생관리, 동탄출장소 건축사업과 공동주택관리2, 시의회 의정기록팀 총 26개 팀이 신설된다.

폐기, 통합은 총 8팀이다. 공유경제가 폐지되고 사회적경제와 사회적경제육성이 합쳐 사회적경제와 사회적경제지원으로, 소통혁신이 폐지되고 소통혁신담당관과 합쳐 소통자치과 소통자치로, 체육시설운영이 폐지되고 체육진흥과 체육시설관리와 합쳐 체육진흥과 체육시설관리로, 스마트교통이 폐지되고 첨단교통과 교통정보와 합쳐 교통정책과 교통정보로 각각 폐지, 통합된다. 또 지역개발과 계약행정, 도시재생과 도시재생은 폐지되고 도시정책실 도시개발과 도시재생1로 된다.

-2면에 계속
서민구 기자 news@ihnews.com

화성시에서 첫 공공관리제 녹색버스 운행

화성여객 200·205번 시가 노선 관리

이달부터 화성시에서 경기도 최초로 시군이 관리하는 버스준공영제가 본격 시작됐다.

경기도는 올해부터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를 시행했다.

이는 도가 관리하는 시군 간 노선(청색버스)과 시군이 관리하는 시군 내 노선(녹색버스)으로 나눠 진행된다.

화성시와 의정부시가 경기교통공사와 업무 위수탁 협약 체결을 통해 도내 첫 운행을 시작했다.

대상 노선은 화성시 2개 노선(화성여객 200번, 205번)과 의정부시 3개 노선(평안운수 1-5번, 1-9번, 명진여객 10-11번)이다.

시군이 관리하는 '시군 내 노선'의 경우 해당 시내에서만 운행할 수 있다.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는 버스 운영수익을 도가 거둔 뒤 일정 기준에 따라 업체에 분배해 시내버스에 대한 공적관리를 강화하는 제도를 말한다.

정시 출발 및 도착 여부, 기사 친절도, 차량 청결상태 등 3년마다 업체를 종합 평가해 버스회사의 경영은 안정화되고 운수종사자들의 처우도 개선돼 도민들은 더 친절하고, 안전하고, 정확한 시간에 도착하는 버스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민정선 경기교통공사 사장은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도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버스 이용 편의를 제공하겠다"라며 "버스 운영에 필요한 경기도와 시군의 재정지원금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해 대중교통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서민구 기자 news@ihnews.com



Weekly Issue

- 화성시, 맞춤형 노인복지 인프라 구축 2면
- [기획] 선거구별 공약 소개 6~7면
- [탐방] 양감면 YG 드론축구팀 12면

돈만 줄줄 새는 빈땅, 노는 땅에서 인건비 0원, 월 800만원의 안정적인 매출을 창출하세요!

※100평, 5년 평균 80% 운영 기준 / 최소 30평부터 창업 가능

세금 내기도 버겁던 유휴지가

매출 800만원의 효자땅으로

검색창에 "캐리박스"를 검색하세요! 🔍

셀프창고 도입, 창업 상담

1566-9700

셀프창고 캐리박스

24시간 자유롭게 비대면 이용

0.8평부터 4.2평까지 다양한 사이즈

핸드폰으로 간편하게 예약, 결제

carrybox 캐리 박스는 당신의 부동산 가치를 높여주는 하이브리드 프론티어 플랫폼입니다.

화성시, 맞춤형 노인복지 인프라 구축

정조효노인복지관 이어 실버드림센터·시니어플러스센터 추진



화성시 시니어플러스센터 조감도.

화성시가 맞춤형 노인복지 인프라 구축을 통해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풍요로운 노후생활을 지원한다.

시는 12일 정식 개관을 앞둔 정조효노인복지관을 끝으로 어르신들의 문화·체육·교육 등 여가생활을 위한 화성시 동·서·남·북부 권역별 노인복지관 구축을 마무리한다.

정조효노인복지관은 시에서 운영 중인 노인복지관 중 가장 큰 규모의 노인복지관으로, 송산동 190-7번지 일원 3지구 근린공원 내에 부지 3500㎡, 연면적 7962㎡,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조성됐다.

총 사업비 211억원을 들여 지난 2022년 6월 착공, 2023년 11월 준공 후 지난 1월부터 시범 운영 중이다. 상담실, 물리치료실, 경로식당, 당구장, 탁구장, 노래방, 장기·바둑실, 대회의실, 프로그램실, 서예미술실, DIY 공예실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춰 화성시 북부권역 어르신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시는 고령화 사회에 대응해 입소자 및 보호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시립노인요양시설 조성을 목표로 '시립화성 실버드림센터' 건립을 추진 중이다.

시립화성 실버드림센터는 향남읍 하갈리 1513번지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6537㎡

규모로 들어서며, 입소 정원은 100명이다. 지난해 11월 당선된 설계공모안을 바탕으로 오는 6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진행 중이다.

실버드림센터는 유니트 형태의 생활공간이 모여 있는 구조로, 중앙정원 주변으로 산책 공간을 배치하고 부지 바로 인근에 있는 오음공원 치유산책로와 연계해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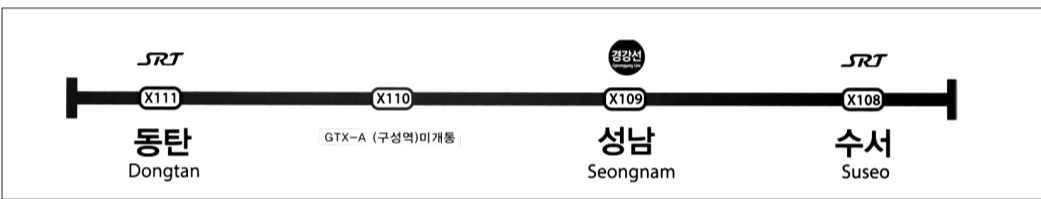
이 외에도 동탄1신도시 반송동 634-2번지 일원에는 동부·동탄지역 어르신들의 사회참여 활동을 돕기 위한 '화성시 시니어플러스센터'도 들어선다.

화성시 시니어플러스센터는 노인 일자리지원 기관인 시니어클럽과 동부권 노인회관의 복합시설로, 연면적 4843㎡,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조성된다. 오는 7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중으로, 시는 어르신들의 수요가 반영된 최적의 설계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설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화성시는 여가생활 공간, 안심돌봄 환경 제공, 일자리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빈틈없는 노인복지 인프라 확충에 힘을 쏟고 있다"라며 "노인복지시설 건립 사업을 적극 추진해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어르신들이 행복한 포용적 복지도시 화성을 만들어가겠다"라고 말했다.

서민규 기자 news@ihnews.com

GTX-A노선 개통, 정 시장 개통식 참석



GTX-A노선도.

동탄~수서 요금 4450원 책정

정명근 화성시장은 29일 수서역에서 열린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수서~동탄 구간 개통기념식에 참석했다.

30일 개통된 GTX-A노선의 요금은 동탄역에서 수서역까지 기존 SRT 이용요금인 7400원보다 저렴한 4450원으로 정해졌다. 이동시간은 약 20분으로 출퇴근 광역교통 문제에도 충분히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정차역은 동탄·성남·수서역이다. 6월 말 용인 구성역도 개통된다. 동탄역에서 오전 5시 30분

에 출발하는 첫 열차를 시작으로 익일 새벽 1시경 마지막 열차가 운행된다. 개통 초기 출근시간대(06:30~09:00)에는 평균 17분 간격(14~21분 간격)으로 배차될 예정이다.

GTX-A 이용요금은 기본요금 3200원에 10km 초과 시 5km마다 250원이 추가되는 구조다. 수도권 환승 할인과 월 15회 이상 이용 시 일 정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K-패스 환급도 적용된다. 또한 △어린이 50%, 청소년 10%, 경로 30%, 장애인·유공자 50% 요금 할인 △주말 기본요금 할인 10% △6세 미만 영유아는 보호자당 3명까지 무료 이용 등 다양한 할인 프로그램이 적용된다.

화성시는 GTX-A 개통에 맞춰 환승 및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한 연계교통 방안을 마련했다. 동탄역 출입구 인근에 광역버스 8개 노선, 시내버스 17개 노선, 마을버스 18개 노선을 운영해 버스를 이용한 접근 및 이동이 용이하도록 접근·보완했다.

특히 GTX-A 동탄역 막차시간과 연계해 H4번 심야버스 운행시간을 기존 22시 10분부터 익일 3시 10분까지에서 22시부터 익일 3시 30분까지 조정해 운영한다.

3월 1일부터는 동탄1·2신도시 DRT(화성특버스) 5대를 증차해 총 20대를 운영 중이며 GTX-A 개통 후 수요 모니터링을 통해 버스 증차 및 버스정거장, 택시승강장 추가 등 대중교통 인프라 구축을 검토할 계획이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GTX-A는 소요시간, 가격경쟁력, 정시성 등 기존 대중교통보다 월등하게 출퇴근 광역교통난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GTX-A 전 구간이 적기에 개통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와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100만 대도시 화성'에 걸맞은 철도교통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서민규 기자 news@ihnews.com

- 1면 "100만 대도시 위한 대규모 조직개편 단행"에 이어서...

동탄출장소 건축권리는 폐지되고 건축산업과 건축행정과 합쳐 건축산업과 건축행정으로 통합된다.

이관은 12팀이다. 소통혁신담당관 시민음부즈만 이 감사관 시민음부즈만으로, 도시디자인과 도시미관이 건축관리과 광고물관리, 첨단교통과 스마트택시가 대중교통과 택시로, 경제정책과 일자리기획이 사회정책과 일자리기획으로, 경제정책과 공공일자리가 사회정책과 사회적일자리로, 도시재생과 도시재생사업1이 도시개발과 도시재생1로, 도시재생과 도시재생사업2가 도시개발과 도시재생2로, 문화예술과 문화시설 건립이 문화시설과 문화시설건립으로, 문화예술과 문화시설운영이 문화시설과 문화시설운영으로, 공원조성과 보타너가든이 보타너가든추진단 보타너가든조성1로, 동탄출장소 사회복지과 청소년환경이 환경위생과 청소년환경, 동탄출장소 사회복지과 위생이 환경위생과 위생지도로 각각

이관된다.

21개 팀은 명칭이 변경된다. 도시디자인과 도시계획사업기획은 도시기획단 도시계획지원으로, 도시디자인과 도시디자인정책은 도시기획단 도시디자인으로, 지역개발과 지역개발1은 도시개발과 도시개발1로, 지역개발과 지역개발2는 도시개발과 도시개발2로, 신도시조성과 봉담사업은 신도시조성과 신도시지원1로, 신도시조성과 진안사업은 신도시조성과 신도시지원2로, 신도시조성과 동탄사업은 신도시조성과 공공택지로, 자치행정과 자치행정은 소통자치과 소통자치로, 인사과 인재채용은 인사과 인사행정으로, 인사과 인사는 인사과 인사운영으로, 민원봉사과 민원여권은 민원행정과 통합민원으로, 반려가족과 반려가족은 동물보호과 동물복지로, 반려가족과 반려문화정책은 동물보호과 동물보호문화로, 반려가족과 반려보호는 동물보호과 동물보호로, 교통정책과 교통행정은 교통정책과 교통정책으로, 버스혁신과 무상교통은 대중교통과 버스정책으로, 주택과 주택행정은 주택정책과 주택정책으로, 공동주택관리과 주택정책은 주택관

리과 주택행정으로, 건축허가와 건축행정은 건축정책과 건축행정으로, 기후환경과 환경행정은 환경정책과 환경행정으로, 동탄출장소 건축산업과 공동주택관리는 공동주택관리1로 명칭이 각각 변경된다.

산불 관계기관 종합대책회의

화성시가 4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봄철 산불 예방을 위한 '산불 관계기관 종합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산불 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청명·한식 기간에 대비, 산불방지 특별대책에 따른 각 기관, 부서별 산불 관련 주요 역할과 추진사항을 공유하고, 예방·대응을 위한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를 정비했다.

손임성 화성시 부시장은 "산불은 산림뿐 아니라 재산, 인명피해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산불 예방에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시는 이달을 산불특별대책기간으로 선포하고 산불예방에 대응하고 있다. 특히 봄철 산불조심 종료기간인 15일까지 산불 예방 및 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한편 손임성 화성시 부시장은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산림휴양과, 자원순환과, 농업기술센터 등 관련 부서와 관내 제51보병사단, 화성소방서, 수원국유림관리소 등 유관기관이 함께했다. 출장소·읍·면은 영상회의로 참석했다.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연구 착수보고회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연구 착수보고회가 열리고 있다.

화성시는 28일 반석산에코스쿨 교육실에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연구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계획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해야 하는 법정계획이다. 각 지자체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고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탄소중립을 달성해야 한다.

화성시는 최근 5년간 인구수 27%, 사업체수 89%가 증가하며 전국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는 도시로 탄소중립 실현이 어려운 여건이다. 이에 따라 화성시연구원에서 화성시 여건을 반영한 기본계획 수립 연구를 맡아 오는 12월까지 화성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목표와 이행과제를 수립한다.

주요 연구내용은 화성시 온실가스 배출여건 및 중장기 감축목표 설정, 비전, 목표, 전략 및 추진 로드맵 수립, 전략별 추진과제 및 중점과제 설정, 추진체계 및 재원계획 마련 등이다.

시는 화성시 특성을 반영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해 기후변화 적응대책과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온실가스를 체계적·효율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화성시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인 오제홍 화성시 환경사업소장은 "탄소중립이 시민의 일상에 정착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부터 적극적으로 실천해 나가겠다"라며 "앞으로도 탄소중립을 위한 다양한 실천과 정책 등을 발굴해 시민과 함께 탄소중립도시 화성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벤자민 로 ASM CEO에 감사패 전달

글로벌 반도체 핵심도시 도약

정명근 화성시장은 29일 벤자민 로(Benjamin Loh) ASM CEO에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날 감사패는 글로벌 반도체 기업 ASM의 투자와 지역 경제발전 공로로 100만 화성시민을 대표한 정명근 시장이 전달했다.

ASM은 네덜란드에 본사를 두고 있는 반도체 ALD(원자층증착) 장비 세계 1위 기업이다. 국내 법인인 ASM 코리아는 870억원을 투자해 2019년 1월 동탄 첨단산업단지 내에 반도체 증착장비 연구·제조 시설을 구축했다. 또한 1350억원을 추가 투자해 'ASM 화성 제2제조연구혁신센터' 건립을 결정하고 지난해 5월 기공식을 거쳐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200명 이상의 고용창출이 기대된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지난 4년간 세계적인 글로벌 반도체 기업인 ASM을 이끌어 오신 벤자민 로의 리더십에 경의를 표한다"라며 "국제정세 불안 및 반도체 시장 침체기에도 불구하고 CEO 재임 중 과감한 투자 결정으로 화성시가 글로벌 반도체 핵심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것에 깊이 감사드립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반도체 증착장비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화성시 반도체 산업생태계 강화를 위한 추가 투자 및 다각적인 협력을 당부드리며, ASM 코리아의 제2제조연구혁신센터 건립 프로젝트의 성공을 화성시와 100만 화



정명근 화성시장이 벤자민 로 ASM CEO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있다.

성시민이 응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벤자민 로 ASM CEO는 "ASM 코리아 제2제조연구혁신센터 건립에 신속한 인·허가 등 시의 적극적인 지원에 감사하고, 감사패를 받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후임 CEO 내정자인 히첸 엠사드(Hichem M' Saad)는 "ASM 코리아는 제조 및 연구시설을 함께 보유한 중요 전조기지로, ASM 코리아를 주축으로 반도체 관련 기업과의 협력을 확대하는 등 화성시가 세계적인 반도체 메카로 완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민규 기자 news@ihnews.com

화성시 승진인사 단행

화성시가 15일자로 시행될 승진 대상자를 사전 예고했다. 이번 승진은 15일 시행될 100만 화성시 조직개편에 대응한 것이다.

승진 규모는 총 59명이며 3급 승진 3명, 4급 승진 4명, 5급 승진 4명, 6급 승진 9명, 7급 승진 17명, 8급 승진 22명이다.

3급 △홍노미 시민복지국장 △공병완 동부출장소장 △오홍선 지역개발사업소장

4급 △박미량 균형발전담당관 △이택구 예산재정과장 △이재국 도시정책과장 △황국환 주택과장

5급 △이영희 안전정책팀장 △이문희 공원계획팀장 △김성삼 북합민원팀장 △김중희 건축행정팀장

6급 △유무승 문화예술과 △박미화 아동친화과 △이호준 교통행정과 △정태진 동부공원관리과 △윤성남 건축산업과 △최성호 재산관리과 △송윤정 공원조성과 △김민국 교통지도과 △박석근 재산관리과

7급 △김예빈 예산재정과 △김치수 예산재정과 △권혜진 회계과 △정혜진 징수와 △김소연 재산관리과 △염은혜 관광진흥과 △김명선 체육진흥과 △국우현 여성다문화과 △김정민 기업정책과 △성태희 의회사무국(파견) △박세정 위생정책과 △강윤희 자원순환과 △한승업 안전정책과 △김건우 부동산관리과 △이민영 교통지도과 △안성준 의회사무국(파견) △김시우 봉담읍

8급 △윤다희 군공향대응과 △한아영 농업정책과 △전슬기 평생교육과 △김미정 아동친화과 △민정선 맑은물운영과 △김민소 차량등록사업소 △김찬미 차량등록사업소 △이진희 동탄출장소 세무과 △김영민 화성동 △강한별 동탄2동 △김현경 동탄5동 △김시현 스마트도시과 △권아름 생활보장과 △문선영 생활보장과 △최정호 생활보장과 △전혜민 중장년노인복지과 △우인제 농업지원과 △조채민 우정읍 △윤경라 건강증진과 △김준식 하수과 △이상호 하수과 △전보경 토지정보과

www.ihnews.com
www.abc.or.kr
www.ihnews.com
news@ihnews.com
대표이사/발행인 민병욱 인재인 장용호 청소년보호책임자 서민규
(우)18401 경기도 화성시 병점로 37-6 메트로프라자 702호
2004년 10월 13일 창간 등록번호 경기 다 01063호 본지는 신문윤리규범 및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 전 화 : (031)232-1980(대표) ■ 팩 스 : (031)225-0159 ■ E-mail : news@ihnews.com
■ 구독료 : 평상 구독료 1백만원, 연 구독료 10만원, 1부 2,500원 / 동협 351-0076-7779-73 (주)화성신문

“화성시 RE 100 사업 확대해야”

화성시연구원, 화성이슈리포트 제7호 발간



화성시연구원은 화성시 신재생에너지의 현주소와 과제를 제시한 2024년 3월 ‘화성이슈리포트 제7호’를 발간했다.

리포트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화성시 신재생에너지 보급 용량은 전국 대비 1.1%, 경기도 대비 13.3%를 차지하고 있다. 2021년 화성시의 최종 에너지소비 대비 신재생에너지 소비는 1.32%였다.

화성시 신재생에너지의 정책과제로는 △화성

시 탄소중립형 RE100 기업·산업단지 전환사업 확대 △화성지역 분산형 전력거래 기반 가상발전소(VPP) 도입·운영 △화성시 특화형 수소도시 인프라 구축 △화성시민 주도형 재생에너지 공동체 사업 추진 △화성형 재생에너지 협력 거버넌스 구성·운영을 제시했다.

이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기여 및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증대, 화성시 전력 자립도 향상 및 관련 산업 생태계 강화, 수소에너지 활용 기술 분야 선도도시 기반 마련 등을 꼽았다.

연구원은 화성시 교육국제화특구의 허와 실에 대해서도 시사했다. 교육국제화특구 3기로 신규 지정된 화성시는 시 전역(844km²)이 특구 추진 지역에 해당한다고 말하며, 화성시 교육국제화특

구 허(虛)-오해로 △특별교부금(국비지원) 불가, △국제학교 설립 불가 등을 밝혔다.

반면 교육국제화특구 실(實)-진실로는 △화성시 학부보 및 시민의 교육환경 인식 △양질의 교육환경 제공으로 시민의 정주욕 및 인구증가 제고 등을 설명하며, 교육국제화특구 사업 추진을 위한 정책과제로 교육국제화특구 예산 확보 및 거점기관 ‘국제교육센터’ 설립, 중장기 교육국제화특구 비전-화성시민 인재양성을 제시했다.

국내의 우수 정책 사례 및 시사점으로는 위기 소상공인 조기 발굴 및 선제 지원을 위한 서울신용보증재단 경영위기 알람 모형과 100만 특례시대비 버스정류소 홍보물, 횡단보도 그늘막 등 일체 정비가 필요한 화성시의 사례를 소개했다.

화성이슈리포트 제7호는 화성시연구원 홈페이지 및 화성시청 홈페이지 시장알림방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민규 기자 news@hnews.com

화성시, 규제혁신 추진단 보고회



2024년 화성시 규제혁신 추진단 추진계획 보고회가 열리고 있다.

화성시가 2일 시청 상황실에서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히 혁신하고 시민이 행복한 희망화성을 만들기 위한 2024년 ‘규제혁신 추진단’ 추진계획 보고회를 개최했다.

규제혁신 추진단은 2022년 7월부터 운영 중인 민선8기 주요공약 사업이다. 기획조정실, 민생경제산업국, 도시주택국 등 기업 및 인허가 관련 화성시 15개 부서와 소상공인진흥공단, 화성상공회의소, 화성산업진흥원 등의 협업체대로 구성돼 있다.

이병열 기획조정실장은 “규제혁신 추진단 운영을 통해 현장 중심의 상향식 규제 혁신을 추진하고자 한다”라며 “시민의 체감도 높은 일상생활 속 규제와 인허가 과정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규제혁신 추진과제 추진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겠다”라고 말했다.

올해 주요 추진과제는 건축인허가 민원처리기간 단축, 개발행위허가 민원처리기간 단축 등 총 14건이다.

시는 추진단 운영을 통해 기업 활동을 저해하고 시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들에 대해 중앙부처에 개선 건의하고 실제 규제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추진 현황을 지속 점검 예정이다.

이병열 화성시 기획조정실장은 “규제혁신 추진단 운영을 통해 현장 중심의 상향식 규제 혁신을 추진하고자 한다”라며 “시민의 체감도 높은 일상생활 속 규제와 인허가 과정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규제혁신 추진과제 추진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겠다”라고 말했다.

서민규 기자 news@hnews.com

한국여성유권자 경기연맹 “시민 여러분 투표하세요!”

병점역 이용 시민에 선거 참여 독려

(사)한국여성유권자 경기연맹(회장 최미금)은 제22대 총선을 앞둔 4월 병점역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공명하고 투명한 선거를 독려하는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날 경기연맹 회원들은 ‘공명선거·투명한 선거는 아름답습니다’라는 문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징 캐릭터가 투표 참여를 유도하는 그림이 담긴 현수막과 손파켓을 통해 시민의 제22대 총선에 투표를 당부했다.

최미금 경기연맹 회장은 “투표는 민주주의에 있어 소중한 주권행사로서, 1표의 권리를 잘 행사해 아름다운 대한민국,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 가자”라며 “5일부터 시작되는 사전투표는 물론 투표 당일인 10일에도 시민들의 많은 참여



최미금 회장(앞줄 오른쪽 세 번째) 등 한국여성유권자 경기연맹 회원들이 시민들에게 투표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하며 캠페인을 펼쳤다.

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1969년 설립된 한국여성유권자연맹은 여성의 민주시민의식 함양과 정치참여 확대, 성인지적 차세대 지도자 양성을 통해 참된 민주

주의 복지사회 구현에 기여하기 위한 활동을 지속해오고 있다. 현재 광역시·도에 17개 지방연맹, 시·군·구에 147개 지부를 두고 있다.

서민규 기자 news@hnews.com

화성시, 공사장 미세먼지 현장 측정

화성시가 봄을 맞아 미세먼지 불법배출원 민간점검단에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를 지급하고 공사장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고 불법 배출 감시를 강화한다.

시는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등 대기질 오염도 측정을 위한 대기환경측정소 10개소와 촘촘한 공기질 측정소 100개소를 운영해 대기오염 상황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대비해 왔다. 이달부터는 미세먼지 불법배출원 점검단이 직접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를 들고 공사장 주변 등 현장을 방문해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한다.

점검단은 해당 측정값을 활용해 기준치 이상

일 경우 공사장 비산먼지 저감 조치 안내문을 배포하고 지도점검 부서인 환경지도과와 측정값을 공유해 미세먼지 배출원을 체계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다.

유정모 화성시 기후환경과장은 “매년 봄철은 시민들이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큰 시기”라며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미세먼지 관리 및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2019년부터 미세먼지 불법배출원 점검단 운영을 통해 주요 미세먼지 배출원의 불법행위를 사전 예방하고 집중 감시하고 있다. 올해는



미세먼지 불법배출원 민간점검단이 공사장 현장에서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를 활용해 불법 배출 감시에 나섰다.

점검단 10명이 미세먼지 수치가 높은 3월부터 6월까지, 9월부터 12월까지 총 8개월간 활동한다.

화성평생교육사협회, 국회의원 후보 정책 제안 순회

읍·면·동 전문 평생교육사 배치로 성인 교육 체계화·전문화 주장

화성평생교육사협회(회장 박서후)는 3일과 4일 화성읍, 화성정 지역의 각 정당 국회의원 후보자 선거사무소를 방문, 후보자들의 교육철학을 듣고, 평생교육 분야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화성평생교육사협회 회원들은 3일 민주당 공영준 후보, 4일 민주당 전용기 후보, 국민의힘 유경준 후보, 개혁신당 이원욱 후보를 차례로 방문해 각 후보자들에게 화성시의 평생교육 관련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했다. 각 후보자들은 선거 후보자 구제적인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자고 화답했다.

4일 민주당 전용기 후보를 찾은 박서후 화성평생교육사협회 회장은 “교육분야의 네트워크를 다양하면서도 촘촘히 만들어 지속력을 갖게 하고, 영역별·분야별·대상별·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 설계를 해주는 부분이 필요하다”라며 “화성시도 시급히 읍·면·동 평생학습센터를 도입해 전문 평생교육사를 배치하고, 지역에 산발적으로 진행되는 교육을 체계화·전문화시켜야



화성평생교육사협회 회원들과 전용기 국회의원이 의견을 나누는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한다”라고 의견을 전달했다.

이에 전용기 후보는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되는지 전체적인 맥락을 살펴보고, 선거 이후에도 자주 만나서 이야기를 좀 해 주고 많이 가르쳐 달라”라며 이번 선거에서의 지원을 요청했다.

순회 정책 제안을 주도한 박서후 회장은 “후보자들에게 평생교육 분야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정책 제안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신호연 기자 news@hnews.com



(주)피앤피시스템

P&P system Co.,Ltd

Security Industry & Process Cleaning



건물관리



청소용역



경비보안



저수조 청소

경기 화성시 동탄첨단산업1로 27(영천동, 금강펜테리움X타워)B동 1633호

T.031-613-3903



(주)다산이엔지

끊임없는 연구와 개발을 통하여

미래 반도체 산업을 대표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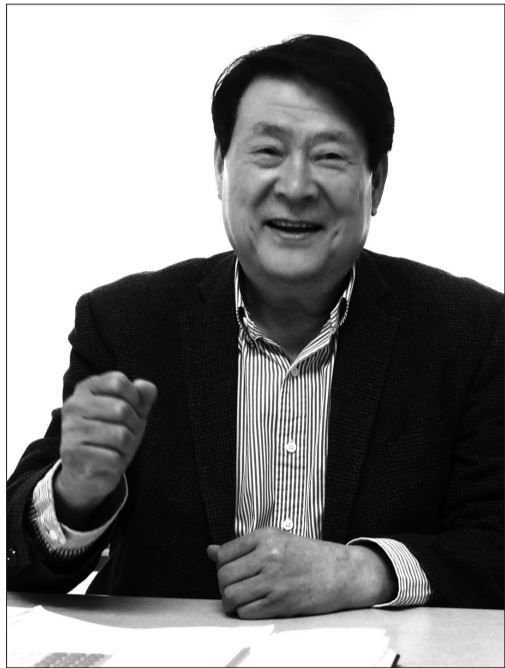
DA SAN

(주)다산이엔지

경기도 화성시 동탄산단2길 58

TEL : 031-235-3936 / FAX : 031-223-5677

(사)대한곡물협회 수도권 최초 김영덕 신임회장 취임



(사)대한곡물협회 수도권 최초 김영덕 신임회장이 자신의 포부를 말하고 있다.

(사)대한곡물협회 제66기 정기총회 김영덕 대한곡물협회 경기도지회장이 신임 회장으로 선출됐다.

김 신임회장은 대한곡물협회 경기도지회장

“국민의 안정적 쌀 먹거리를 책임질 수 있는 법인”

출신으로 회장에 취임하게 됐다.

대한곡물협회는 1954년 설립 이후 70년 역사 상 처음으로 수도권 출신이 회장을 맡게 됐다.

김영덕 신임회장은 정형외과 전문의로서 현재 화성시 병점동에서 제일요양병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기간동에서는 기업으로 물려받은 정부양곡 보관창고인 대영창고의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있다.

대한곡물협회는 1954년 설립 70년 역사를 자랑하는 곳으로 국가양정시책에 기여하고자 정부의 인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서, 정부양곡만을 도정해 군·관수용, 복지용, 가공용 쌀 등으로 공급하는 정부양곡 도정업체 116개소와 이를 보관하는 정부양곡 보관창고 700여개소 그리고 미곡종합처리장 9개소의 회원들로 구성돼 있다.

지금도 정부양곡 도정공장의 시설 현대화가 많이 진행돼 있으나, 더욱 안전한 쌀 먹거리 공급을 위해서는 GAP시설 인증이 필요하므로 S급 도정공장은 내년 3월까지, A급 도정공장은 27년

3월까지 GAP시설 인증을 완료할 계획이다.

정부양곡 보관창고는 전체 창고를 대상으로 저온시설을 유도해 한여름에도 15도 이내로 쌀을 보관해 해충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1년 내내 신선도 좋은 쌀을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김 신임회장은 정책보조금 지원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 조금이라도 회원들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 적극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김 신임회장은 “제 공약은 물론 경쟁 후보의 공약도 적극 수용해 곡물협회가 정말로 국민의 안정적 쌀 먹거리를 책임질 수 있는 사단법인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영덕 (사)대한곡물협회 회장은 “70돌을 맞은 대한곡물협회가 시기일전해 명실상부 국민의 쌀 먹거리를 책임질 수 있는 사단법인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켜봐 주시고 따가운 질책과 더불어 따뜻한 격려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신홍식 기자 news@hnews.com

화성시, 경기도 세외수입운영 시군 종합평가 대상

화성시가 경기도 주관 ‘2024년 세외수입운영 시군 종합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세외수입운영 종합평가는 지난해 세외수입 징수 및 세입운영 업무 전반에 대해 경기도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종합평가다. 현년도

세외수입 징수, 체납액 정리, 기관장 관심도, 신규 세입 발굴 및 제도개선, 입상 및 전담조직 운영

등 5개 분야 9개 지표를 평가한다.

화성시는 수원시, 성남시, 용인시 등이 속한 1그룹(부과 규모 기준)에서 대상을 수상, 경기도지사 표창과 3000만원의 시상금을 확보했다.

화성시는 그동안 △정수대책 보고회 개최 △세외수입 우수부서 자체평가 실시 △신규 세입 발굴 및 권익위 규제 혁신제도 개선 △체납징수

전담조직 운영 △세외수입 직무 교육 △찾아가는 멘토링 실시 △납부 편의 시책 홍보물 제작 배부 등 세외수입 증대를 위한 다양한 특수시책을 추진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오추섭 화성시 징수과장은 “앞으로도 효율적인 세수증대 방안 마련과 체계적인 체납 관리를 통해 화성시의 안정적인 재정기반을 확충하고 세외수입 운영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민규 기자 news@hnews.com

YOYOSO 그룹 마한 회장 (주)동방비엔에이치 방문



(주)동방비엔에이치를 방문한 YOYOSO 그룹 일행과 관계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5일 YOYOSO 그룹 마한 회장을 비롯한 수뇌부 8명이 (주)동방비엔에이치(회장 김태희)를 방문했다. 이 자리에는 이성천 C&K GLOBAL HOLDINGS 회장을 비롯한 관계자 10여명이 함께했다.

이번 YOYOSO 그룹의 방문은 지난 1월에 체결한 MOU(YOYOSO 매장에 30~50평 정도의

Shop in Shop 형태로 한국관을 신설)의 구체적 협의 및 실사를 위한 것이다. 일행은 김태희 (주)동방비엔에이치 회장으로부터 회사 소개 및 국내 시장 현황에 대한 브리핑을 받고, 쇼룸 및 현장 견학을 진행했다.

마한 YOYOSO 그룹 회장은 “원하는 파트너사

를 찾은 것 같아 기쁘고, 앞으로 (주)동방비엔에이치와 함께 좋은 비즈니스를 지속해 가길 바란다”라며 “현재까지는 YOYOSO 내의 화장품을 모두 중국에서 생산했는데, 이번 기회를 계기로 YOYOSO 내의 화장품을 우수한 한국 화장품으로 교체하고, 공산품은 경쟁력 있는 중국에서 생산함으로써 함께 세계로 진출해 나가자”라는 포부를 밝혔다.

김태희 (주)동방비엔에이치 회장은 “전 세계 80여 나라에 진출해 있는 YOYOSO 매장에 한국관을 만들어 공급하는 것은 관련 국내 중소기업에도 큰 희망이 된다”라며 “앞으로 좋은 협력 관계를 지속해 세계 시장을 석권할 수 있도록 해보자”라고 화답했다.

YOYOSO 그룹은 80여 나라에 진출해 있으며, 뷰티·생활용품·공산품 등 3만 5000개 이상의 제품군으로 향후 100여 나라에 진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현재 YOYOSO 국내 1호점을 물색 중으로 7월에 1호점을 오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호연 기자 news@hnews.com

4월 열리는 다양한 볼거리를 찾아서



소다미술관 'PALETTE : 우리가 사는 세상 2024' 전시 전경.

순국 선열 추모,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소통, 역사 인물의 되짚어 봄 등

4월은 봄꽃들이 저마다의 뚜렷한 색깔을 드러내며 생명을 노래하는 ‘찬란한 달’이며, 역사적으로 많은 억울한 죽음들이 있었던 ‘잔인한 달’이기도 하다.

4월을 맞아 화성시 곳곳에서 많은 볼거리들이 열리고 있다. 매홀문화예술진흥원(원장 문제도)에서는 1919년 제암리 학살 사건으로 숨진 스물아홉 선열을 기리는 ‘아! 제암리 제노사이드 -평화의 외침’ 전시를 갖는다. 전시회는 향남읍 제암고주로53번길 23-8 (구발안프리미엄아울렛)에서 4월 13일(토) 14시 개막식을 시작으로 5월 7일(화)까지 진행된다.

문제도 매홀문화예술진흥원은 “제암리의 비극의 기억을 통해 모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 가기 위해 북소리로 위로하고, 그림과 시(詩)로 표현하며, 우리의 정약과 가야금으로 생각하고 춤(舞)으로 들으면서 조형물로 의미를 쌓아 퍼포먼스로 풀어내는 융·복합 예술 공동작업을 이어가고자 한다”라고 취지를 밝혔다.

4월 13일 개막식에서는 평화의 올림픽(모듬북 연주 유형림), 시 낭송(시 윤인환, 낭송 황주현), 살풀이 무용(김부경), 춘설(가야금 연주 신화정), 퍼포먼스(태경아트컴퍼니, 연출 강태경), 전시(순국하신 29선열을 기리는 작품, 문제도), 플라마켓 등으로 다양하게 진행된다.

소다미술관(관장 장동선)에서는 4월 2일~4월 20일 'PALETTE : 우리가 사는 세상 2024' 전을 진행한다. 이번 전시회에는 13명의 장애·비장애 예술가(권세진, 김민경, 김재현, 라윤권, 문지영, 손종준, 윤현정, 이주이,

전다영, 정은혜, 조영배, 최명은, 한서아)가 참여해 대상과의 관계를 통해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다양한 삶을 보여준다.

본 전시는 세 가지 전시 프로그램(아트, 무비, 북)으로 구성돼 있다. 'PALETTE X ART'는 일곱 작가들의 일상 속 관계를 그려낸 작품을 보며 다양한 삶의 가치와 소통 방법을 돌아보게 한다. 3편의 애니메이션과 1편의 단편영화가 상영되는 'PALETTE X MOVIE'는 공감 가는 일상 속 경험을 소재로 타인과의 관계 맺음을 통해 전시를 보다 쉽고 따뜻하게 느껴볼 수 있다. 또한, 'PALETTE X BOOK'에서는 장애 관련 출판사들(꿈꾸자유&서울의학서적, 소소소소통, 오세이프)과 협력하여 북큐레이션을 통해 장애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하고자 한다.

노작홍사용문학과(관장 손택수)는 특별한 삶을 살다 간 분들의 초상을 담은 전시, 안한수 인물화전 '되짚어 봄: Spring Seeing Poem'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근현대사를 수놓은 역사 인물의 생애를 들여다보고, 그들이 남긴 순정 한 메시지를 그림과 함께 나누자는 취지로 기획됐다. 3월 29일~6월 30일 노작홍사용문학과 2층 기획전시실에서 진행되며, 관람은 무료이다.

봄 계절 동안 진행되는 이번 전시에서는 독립운동가, 문인, 사회운동가 등 역사 인물을 담은 인물화 총 15점을 선보인다. 윤동주, 이육사, 김남주, 현상병, 신동엽, 유관순, 김구, 윤봉길, 홍범도, 신재호, 안창호, 문익환, 윤상원 등이 캔버스 공간에서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한편 화성시독립운동기념관 개관(4월 15일) 및 화성3.1운동만세길 재개관(4월 중)이 예정돼 있다. 올해 상반기는 화성지역 독립운동의 역사를 기억하고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신호연 기자 news@hnews.com

경기도 최초의 봉안(납골)전문 재단법인

孝園 효원가족공원

고인의 보관이 아닌 소통을 위한 곳

10년 사용료 30만원 (관리비 별도)

www.skypark.co.kr

고객과의 약속
마음·정성

-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을 준수하고 올바른 장례문화를 선도하겠습니다.
- 또한 최고의 서비스로 고인과 유가족께 정성을 다하며,
- 유가족과 슬픔을 함께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화성시 향남읍 서봉로755번길 17-15 ☎1800-2325

향남 하늘가장례식장

(기독교 천국환송 예식 전문)




24시간 상담 및 출동대기 중

☎ 031)366-4444

화성시 향남읍 발안로 322

화성시, 학교복합화 공모사업 지역 선정

화성시가 경기도교육청의 지역 맞춤형 학교 복합시설 건립을 위해 추진한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이번 사업비는 교육부로부터 369억원을 지원받는 것으로 화성을 포함한 안산, 시흥, 용인, 평택 총 5곳이 선정됐다.

학교복합시설은 교육부 핵심 정책 중 하나로 교육·돌봄 환경 구축과 지역 통합의 중심적 역할이 기대되고 있고, 2023~2027년까지 5년간 전국 총 200개 시설 확충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화성은 동탄23초 학교부지에 학생과 지역주민의 생존수영, 건강수영 등 교육 기회 확대

를 위한 수영장을 설립해 운영할 예정이다.

김기태 도교육청 시설과장은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은 물론 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맞춤형 학교복합시설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신홍식 기자 news@hnews.com

푸른초, 교육장배 육상대회 초등부 우승



푸른초가 화성오산 교육장배 육상대회서 초등부 종합 우승을 차지했다.

푸른초등학교(교장 김진숙)가 30일 '2024 화성오산 교육장배 육상대회'서 초등부 종합 우승을 차지했다.

이날 734명이 참가한 대회에서 푸른초 학생 38명이 참여해 종합 우승이라는 우수한 성적을 냈으며, 이외에도 3년 연속 초등부 종합 우승이라는 성적을 통해 실력을 입증해 냈다.

투포환 종목 1등을 차지한 홍희지 학생은 "던지기 전에는 떨렸는데 던지고 나니깐 시원했습니다"라며 "친구들과 함께 좋은 성적을 내 기쁘

고 좋은 추억을 만들어서 너무 재미있었고 함께 훈련해 주신 선생님에게 감사드립니다"라는 소감을 전했다.

김진숙 푸른초등학교 교장은 "종합 우승이라는 좋은 결과가 있어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지만 결과와 상관없이 그간 열심히 준비해 준 교사와 학생에게 고마운 마음이다"라며 "이 대회를 계기로 도전하고 성취하며 때로는 실패를 기회로 다시 일어서는 다양한 경험을 통해 더 성장하는 학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7179(친한친구) 화해중재단' 역량 강화 연수



화성오산교육지원청 화해중재단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연수를 진행하고 있다.

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정광윤)은 3일 YBM연수원에서 7179(친한친구) 화해중재단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연수를 개최했다.

해당 화해중재단은 학교 내 갈등 사안 발생 시 화해와 회복 중심의 교육적 해결을 통해 학교의

교육력 회복과 건강한 교육공동체 성장을 위해 마련한 화성오산교육지원청 자문기구다.

이번 연수는 △화해중재위원 역량 강화를 주제로 중재단 운영 방향 및 현황 안내 △학생 관련 갈등 상황에 대한 접근 및 사전·본 모임 실습 △갈

등 중재'를 위한 대화 모임 진행 절차 이해 및 시나리오 작성 △시나리오 바탕 조정 실습 및 코칭 △관계 회복 프로그램 운영 팁과 유의사항 공유 △관계 회복 프로그램 운영 과정 이해 및 실습 등이 진행됐다.

이번 연수에 참여한 이광재 화성반월중 교장은 "학교폭력 외에도 학생 인권이나 교육활동 침해 사안 등 학교에서 발생하는 학생 관련 갈등 사안의 교육적 해결을 통한 학생 간의 관계 회복과 교육공동체의 동반 성장을 위해 중재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학교와 교육지원청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함동철 교육지원청 생활인성교육과장은 "이번 연수를 통해 학교별 상황에 적합한 현장 지원 역량 및 학교폭력, 학생인권 침해 등 학생 관련 갈등 사안의 교육적 해결 역량이 강화되길 바란다"면서 "평화롭고 안전한 학교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화해중재단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도교육청, 유네스코 교육의 미래 국제포럼 설명회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2일 남부청사에서 '2024 유네스코 교육의 미래 국제포럼'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2024 유네스코 교육의 미래 국제포럼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유네스코 교육의 미래 보고서 특강 △2024 유네스코 교육의 미래 국제포럼 운영 안내 순으로 진행했으며 자리에는 250명이 참석했다.

국제포럼에서는 2021년 발간된 유네스코 교육의 미래 보고서가 제안한 다양한 의제를 중심으로 유네스코 회원국의 미래교육 정책·연구·현장 실천 동향을 논의한다.

또한 경기교육 정책과 학교 교육활동 사례를 유네스코 본부와 공유하는 기회를 통해 전 세계에 경기교육의 위상을 높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장미란 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은 "유네스코 국제포럼은 경기교육의 변화와 성장을 국제적으로 공유하는 기회"라며 "경기교육 정책 전반을



2024 유네스코 교육의 미래 국제포럼을 위한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성찰하고 우리가 해야 할 새로운 도전과 과제를 발굴해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 모든 기관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12월 2일부터 4일까지 수원

컨벤션센터에서 교육부, 유네스코 본부,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공동으로 '미래를 위한 교육 변혁'을 주제로 '2024 유네스코 교육의 미래 국제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안하고, 학생 맞춤형 진로 설계 교육

안하고등학교(교장 김기두)는 3일 전교생을 대상으로 학생이 꿈꿀 수 있는 '진로비전스쿨'을 운영했다.

이번 활동은 △내가 품고 사는 가치 △시대 트렌드와 시대적 과제 이해 △직업 목표 찾기 △미래의 유망 분야 △나에게 어울리는 미래 직업 △비전 선언문 작성 △3년 계획서 작성 등 신입생이 학교에 적응해 목표를 설정하고, 진로에 대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

특히 안하고는 △꿈과 비전의 부재로 인해 방황하는 학생이 자존감 회복과 단계적 비전을 설정할 수 있는 기회 제공 △순에 잡히는 미래 청사진 설계로 학생 스스로 꿈을 위해 노력할 수 있

는 동기 부여 △시대 트렌드 분석 및 시대적 과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며 그림 포트폴리오를 작성하고 자신의 꿈을 그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3가지의 추진 목표를 제시했다.

김기두 안하고등학교 교장은 "학생이 진로비전스쿨을 통해 자신의 인생을 설계하고, 미래 트렌드 활동을 통해 진로 직업에 대한 목표를 설정해 자신의 꿈을 그려갈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 학교는 '자존감과 포용성을 갖추고 함께 성장하며 꿈을 가꾸어가는 행복한 학교'라는 비전을 통해 운영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신홍식 기자 news@hnews.com



학생을 대상으로 맞춤형 진로 설계 프로그램인 진로비전스쿨을 진행하고 있다.

제6회 화성시청소년정책제안대회 참가자 모집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은 관내 청소년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와 청소년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제6회 화성시청소년정책제안대회' 참가자 모집에 나섰다.

이번 대회는 관내 거주 재학생 중 9~24세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참가가 가능하다.

참가자는 △내 삶을 바꾸는 희망화성 △100만 특례시 진입 준비 청소년을 주제로 참여, 인권, 진로, 교육 등 10개 분야에 대한 정책을 제안할 수

있다.

접수 기간은 4월 3일부터 29일까지 유엔아이 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특히 이번 대회는 예선과 본선으로 나눠 진행되며, 본선에는 8팀만이 진출한다.

본선에 진출하는 참가자는 워크숍을 통해 정책을 보완하고 강화하기 위한 강의를 듣게 된다.

또한 5월 18일 개최될 본선에서는 청소년 및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이 우수 청소년정책을 선정한다.

화성시청소년수련관 관계자는 "청소년의 주도적인 정책 참여로 청소년의 사회참여가 활성화되길 바란다"며 "이번 정책제안대회에서 좋은 정책이 도출되고 정책 추진 과정에서 청소년이 참여해 청소년 중심의 정책이 추진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유엔아이센터 홈페이지 또는 화성시청소년수련관(031-267-8841)로 문의가 가능하다.

신홍식 기자 news@hnews.com

청계중-왕배푸른숲도서관, 독서문화 증진 MOU

청계중학교(교장 조도순)와 왕배푸른숲도서관은 28일 지역사회 공공서비스 활성화와 청소년 독서문화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청소년 독서문화 프로그램, 교과 연계 도서 대출 등 다양한 독서 프로그램을 연계할 예정이며, '미디어리터러시' 주제 강좌 개최 등 상호 교류를 위해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조도순 청계중학교 교장은 "지역사회의 자원인 왕배푸른숲도서관의 지원과 상호 협력을 통해 우리 학생들이 독서를 생활화하고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어 기쁘다"며 "학생을 위해 독서활동 관련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장기적으로 교류하고 협력하는 관계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신홍식 기자 news@hnews.com



학생의 독서문화 증진을 위한 양 기관 관계자들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반석초, 화성오산교육장배 육상대회 준우승



반석초 학생들이 '2024 화성오산 교육장배 육상대회'서 메달 15개를 획득하며 종합 준우승을 차지했다.

반석초등학교(교장 권태주)는 30일 화성종합경기타운에서 열린 '2024 화성오산 교육장배 육상대회'서 종합 준우승을 차지했다.

이번 대회는 트랙, 필드 달리기, 투포환던지기, 멀리뛰기, 높이뛰기, 400m 등 모든 종목에 35명의 학생이 참가했으며, 이종 금·은·동 메달 15개를 획득했다.

2023년 8월 육상부를 창단한 지 7개월 만에 종합 준우승이라는 결과를 드러낸 것이다.

권태주 반석초등학교 교장은 "반석초 육상부 학생들이 열심히 연습해서 좋은 성적을 거둬 기쁘다"며 "앞으로 반석초 육상부가 더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신홍식 기자 news@hnews.com

진안중, 꽃피는 봄맞이 식목일 행사

진안중학교(교장 송기태)는 식목일을 맞아 3일 학생들과 함께 '아름다운 학교 만들기'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학생들은 학교 행사에 참여하는 기회를 얻었으며, 직접 학교를 꾸미고 만들어갈 수 있는 주도적인 활동을 진행했다.

특히 학생들은 팬지, 백일홍, 패랭이 잔디꽃, 해바라기 등을 심으며 식물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을 보냈다.

또한 학교 현관에는 수국, 제라늄 등 화분 배치와 학생·교사의 미술작품을 전시해 꽃과 예술 작품이 어우러지는 분위기를 만들었다.

활동에 참여한 진안교육공동체는 "진안중 학생들이 아름다운 꽃을 가꾸듯 자신의 인성을



진안중 학생들이 식목일을 맞아 직접 학교에 꽃과 나무를 심으며 생명의 소중함을 느끼고 있다.

아름답게 키우며 활짝 피어나 즐겁고 행복하게 생활할길 응원한다"고 전했다.

화성시갑 선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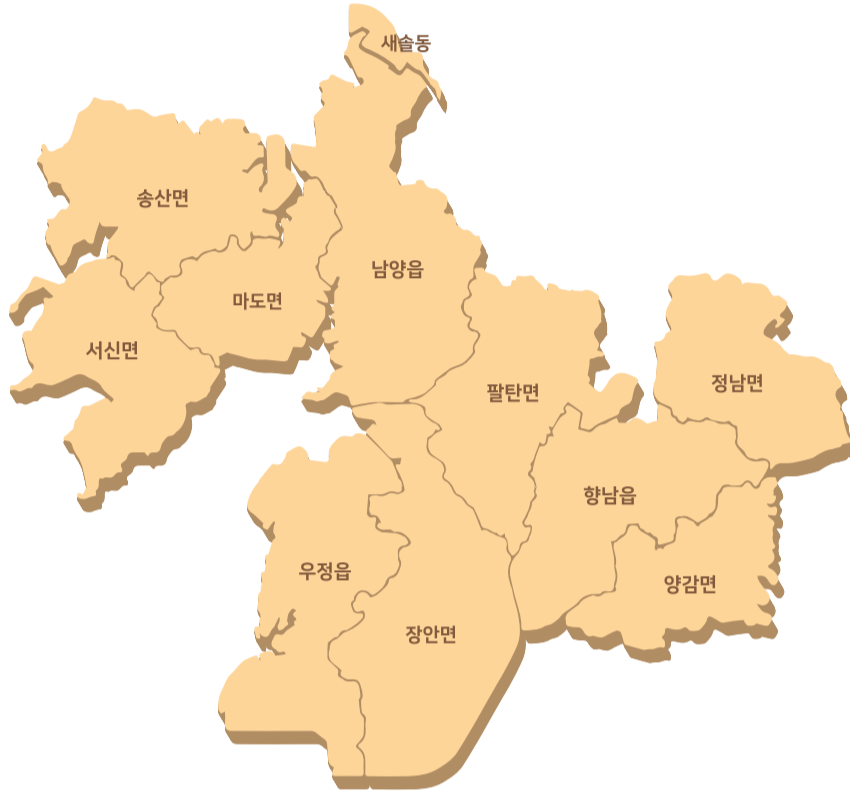
송옥주 후보 민주당

“7대 핵심공약 통해 서해권 중심도시 도약”



홍형선 후보 국민의힘

“서화성의 대변혁, 함께 잘 사는 화성 목표”



화성시 동부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발이 더딘 서남부권을 대상으로 하는 화성시갑 선거구에서는 역시 동-서 균형발전이 최대 화두다. 어떻게 대중교통망을 확충하고, 특히 부족한 철도망을 잇는 가 하는 방안에 대한 관심이 높다. 이와 함께 수원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인 화옹지구가 있는 만큼 군공항 이전 문제도 조미의 관심사다. 이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강력하게 화옹지구 이전을 반대하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화성갑을 서해권 중심도시로 도약시킨다는 계획 아래 7대 핵심 공약을 밝혔다. 공통 공약으로 수원전투비행장 화성 이전 완전 백지화, 교통분야에서 화성 서부권 철도망·대개발 추진, 도시·주거 안전 분야에서 서부권 법조타운 조성, 의료·복지 분야에서 화성형 공공의료원 설립, 교육·아동청소년 분야에서 국제학교 및 글로벌 대학 캠퍼스 유치, 산업·일자리 경제 분야에서 미래산업(미래차, 바이오) 융복합 단지 조성, 문화·여가

관광 분야에서 서해안 해양관광·역사 문화벨트 조성 등 7가지다. 이를 통해 항상 쾌적하고 안전한 ‘명품 주거도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명품 복지도시’, 더 빠르고, 더 편리한 ‘명품 교통도시’, 대한민국 경제를 견인하는 ‘명품 첨단산업도시’, 아이들의 꿈이 이뤄지는 ‘명품 교육도시’, 다시, 오랫동안 머물고 싶은 ‘명품 문화관광 도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지역별 공약도 내놓았다. 대표 공약을 살펴보면 △새솔동(복합문화시설 건립) △송산면(대부도 도로 연결) △남양읍(교육문화센터 조성) △서신면(서해안 해양휴양림 및 해양생태탐방로 조성) △마도면(마도 IC 진출입로 개선) △우정읍(구 조암터미널 부지 공공활용방안 마련) △장안면(남양호 수질 개선 및 축산악취 저감대책 마련) △양감면(체육공원 및 드론축구 전용구장 조성) △항남읍(발안만세시장 환경개선 및 청년몰 조성) △정남면(황구지천 횡단교량 설치) △팔탄면(신안산선 팔탄역 설치) △

비봉면(비봉택지지구 도시기반 시설 확충) △매송면(어천공공택지지구 개발사업 조속 추진) 등이다. 송옥주 후보는 “100만 도시 화성을 초선의원이 책임질 수 없다”라면서 “지난 4년, 시민과 동고동락 하며 큰 성과를 만들어 낸 역량과 실력이 검증된 송옥주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홍형선 국민의힘 후보 공약의 목표는 3가지로 동서균형발전·지역격차 해소, 변방에서 중심으로 서화성의 대변혁, 함께 잘 사는 화성이다. 이를 위해 군공항 이전 영구 백지화·일몰법 도입, 우정 첨단모빌리티산업 클러스터 조성, 자동차 전용도로 건설 화성대순환로, 서화성 전철시대 개막·X자형 전철망, 공공임대주택 분양가 상한제 도입, 8-18세 월 교육지원비 20만원 지급, 우리 동네 생활체육시설 확충, 향남 광역복합환승센터 등 역세권 개발,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혜택 확대, 신안산선 새솔역·팔탄역 신설 추진 등 10대 공약을 마련했다. 8개 분야별 공약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주거(근심 걱정 없는 행복한 아파트) △교육(자녀 교육하기 좋은 명문 교육도시) △돌봄(일·가족 모두 행복한 돌봄 구축) △청년(청년의 꿈이 화성의 미래) △문화(화성의 새로운 활력소, 문화예술) △동행(여성·노인·장애인·반려동물 모두 함께 행복한 화성) △관광(서해안 C자형 관광벨트 실현) △농업(1차 산업에서 6차 산업으로)이다. 지역별로는 향남읍, 남양읍, 새솔동을 살게전이 흐르는 최고의 명품도시를 구현하고, 우정읍, 장안면, 양감면, 팔탄면, 정남면, 송산면, 서신면, 마도면, 비봉면, 매송면은 서남부권 화성 농어촌 볼 빛 프로젝트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홍형선 후보는 “28년을 국회에서 함께 일한 사무처 직원들이 인정하는 화성이 기다린 진짜 전문가”라며 “화성 미래를 위해 이 사람을 지지해 달라”라고 말했다. 서민구 기자 news@ihnews.com

화성시를 선거구



공영운 후보 민주당

“반도체와 자동차로 새로운 성장 동력 만들 것”



한정민 후보 국민의힘

“반도체 패권국가 교육수도 동탄 이뤄낼 것”



이준석 후보 개혁당

“반도체 산업 중심시조 과학 인재 양성”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두고 화성시를 후보인 공영운 더불어민주당 후보, 한정민 국민의힘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동탄2신도시 주민을 위한 경제, 교육, 복지, 의료, 문화 등에 대한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특히 3명의 후보는 주요 공약 중 동탄 주민이 공통적으로 고충받고 있는 교통 정체, 주차장, 다 지자체와 비교해 학급당 인원이 월등히 많은 학급당 35명으로 과밀이 된 학급 해소 공약, 반도체 중심 도시 성장, 타지자제로 원활한 출퇴근을 위한 M버스 배치, 혹은 노선 신설 등 동탄2신도시 주민 편의시설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약을 내걸었다. 공영운 후보는 전 현대자동차 사장으로서 경제분야 전문가로 반도체+미래차 혁신산업 융합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이제는 반도체와 자동차를 다른 분야로 두고 성장하는 것이 아닌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만들어 동탄과 대한민국을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공 후보의 경제 대표 공약으로 △반도체+미래차 혁신산업 융합클러스터 조성 추진(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미래신산업 인프라 확대, 동탄2 자율주행 시범운행 지구 지정 추진) △경기 남부 RE100 반도체 클러스터, 반도체 메가시티 조성 추진(윤석열 정부가 낮은 재생에너지 발전 목표 원상 회복, RE100 가입 기업 인센티브 확대, 반도체기체

재생에너지 우선 배분, U형 재생에너지 벨트 조성 사업 차질없이 추진) △가칭 ‘화성 동탄 컨벤션센터’ 건립 추진(국제회의, 박람회, 전시장, 숙박시설 등 복합문화공간 확충) △반도체 벨트 연계, 글로벌 기업 연구소 및 지사 유치 추진(해의 유망기업 투자유치 환경 조성, 지역 경제 활성화 기대)을 발표했다. 또한 교통은 동탄-부발선 철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M버스 및 광역 버스 노선 신설, 수요응답형 버스 체계 및 신개념 마이크로 모빌리티 시스템 구축을 약속했다. 이외에도 동탄에 중·고교 확충, 경부고속도로 상부공원과 청계중앙공원으로 이어지는 공간을 뉴욕의 센트럴파크와 같은 대규모 공원으로 조성, 대학병원을 유치해 대형 병원에 가기 위해 서둘러 이송하지 않아도 되는 의료 환경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한정민 후보는 전 삼성전자 DS부문 연구원이자 분석 전문가로 알려져 있으며 “반도체 패권국가, 교육수도 동탄을 위해 제 청춘과 경험을 쏟아부었다”는 포부를 밝혔다. 한 후보는 대표 공약으로 △분당선 연장(기흥-동탄-오산) 추진 △동탄-부발선(반도체 라인) 추진 △동탄인택원선 및 트램 적기 개통 △GTX-A 전 구간 적기 개통 및 K패스 등 요구할인 △동탄역-서동탄역 1호선 연장 조속 추진 △수도권내륙선(동탄-청주공항) 조속 추진 △동탄역 복합환승센터 개발 추진 △서울행 광역버스, 시내·마을버스 노선 확충 추진 △장애인 이동권 보장 위한 교통시설 정비 △주차장 추가 건립 추진을 내걸었다.

이외에도 교육국제특구 활성화(영특화도서관 설립), 반도체고등학교·외국어고등학교 설립 추진, 화성오산교육지원청 동탄교육지원청으로 분리 신설, 학교 신설을 통한 과밀학급 문제 해결, 첨단산업아카데미·반도체인재개발원 설치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을 내걸었다. 이준석 후보는 개혁신당 대표로서 화성시에 출마를 선언하며 “미래 주축이 될 세대가 많은 정책적 변화를 줄 수 있는 동탄에서 미래를 걸고 승부하는 방법”이라며 이에 맞는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대표 교통공약으로 △남동탄IC설치-남동탄 주민들이 기흥IC까지 갈 수 있는 교통 편의 조성 △용인 남반도체 단지과 동탄 신동 신주거단지를 연결해 동탄성장할 수 있는 남시터널 설치 △만성적 교통 정체를 겪고 있는 구간인 신리IC와 중리IC 진출입로 개선 △분당선 동탄 연장 및 분당선 호수공원역 설치 △지능형 교통체계 도입을 통해 동탄2신도시 신호체계 전면 개편과 만성 교통 정체 해소 △등하교 외 시간 속도제한 완화로 통해 원활한 교통 체계 구성 △GTX-A 정거권 도입으로 시민 교통비 부담 경감 등을 내세웠다. 이외에도 수도권 유일 국립직업체력관 분당 잠원동 동탄 유치, 동탄 과학고와 예술고 설치, 왕배중학교, 아인중학교(가) 신설로 과밀학급 해소, 특별법 제정으로 동탄의 첨단산업 여건을 교육환경에 활용하는 교육특화지구 지정, 경부고속도로 상부에 공원 ‘굿모닝파크’(가)를 개발해 동탄주민의 편의시설 확충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다. 신홍식 기자 news@ihnews.com

우양이엔지 WOOYANG ENG CE km3 km3 G-CERTZ INNOBIZ 28년의 축적된 기술력과 노하우 집진기 맞춤제작 전문 22건의 특허 보유 18개 CE 인증 보유 (800개 제품) 환경기계 전문공사업 등록 기계 설비공사업 등록 대기오염 방지시설 맞춤제작 전문 www.wooyangeng.co.kr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현대기아로 495 Tel : 031-434-2204 Fax : 031-434-2919

20년 노하우의 탁월한 기술력과 혁신적인 서비스 건축 비노출 방수시트, 모든 비닐 OK! JM e&c (주)제이엠이엔씨 대표이사 김진영 화성시 남양읍 신남로 370-8(신남동 1186번지) T. 031-355-4841 www.jmenc.co.kr

화성시병 선거구

화성시정 선거구



권철승 후보 민주당
“봉담, 병점을 지역 교통 중심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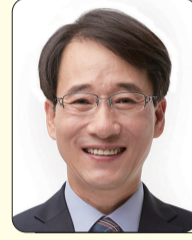
최영근 후보 국민의힘
“지역별 격차 줄여 발전 촉진 전력”



전용기 후보 민주당
“계획도시 넘어선 완성도시로 인프라 구축해야 될 때”



유경준 후보 국민의힘
“100만에 걸맞지 못한 행정서비스 동탄분시로 해결”



이원욱 후보 개혁신당
“경기남부 반도체벨트로 지역주민 교통편의 증진”



화성시병 지역 선거구는 봉담신도시, 태안3지구 등 택지개발지구와 구 도심이 공존하고 용건릉, 용우사 등 다양한 문화유산이 존재하는만큼 지역역이 각각이다.

이에 따라 여야 후보 모두 봉담, 진안·병점, 기배·화산 등 지역별로 차별화된 특성화 공약을 내세운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특히 3선에 도전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역임한 더불어민주당 권철승 후보와 민선 화성시장을 역임한 국민의힘 최영근 후보의 중량급 인사 간 매치인만큼 공약 대결도 뜨겁다.

각축이 예상되면서 선거인이 많은 봉담 지역의 경우 교통망 확충과 지역편의 시설 개선이 공약의 핵심이다.

더불어민주당 권철승 후보는 공약으로 26개 세부 과제를 내세웠다.

△서울 3호선·신분당선 봉담 연장 △봉담3지구 수인선 신설(가칭) 역세권 개발 △권역 순환(봉담-기배-화산-병점) 직행버스 신설 △문화예술다운 조속 추진 △봉담와우복합문화도서관 개관 △삼보폐광산 일원 공원화 등 봉담지역을 화성 북부 교통 중심이자 법조타운으로 조성하는 방안 등이다. 서울 3호선 연장의 대안으로 제시된 신강남선은 봉담 연장을 전제로 고려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권철승 후보는 “봉담이 화성 북부지역 교통 중심이 되도록 도로망과 철도·

버스 노선망 확충에 힘쓰는 한편, 삼보 폐광산 공원화, 문화예술다운 연계 법 조다운 조성으로 법률서비스 개선과 함께 사회·문화·환경·지역경제까지 순기능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최영근 국민의힘 후보도 봉담2지구 맞춤형공약을 내놓았다. △수영장 등 청소년·여성·노인·다목적 체육시설 건립 △삼보폐광산 부지에 대규모 체육단지 및 생태공원 조성 △마을버스 증차 및 운행횟수 증가 △시내버스 증차 및 운행시간 조정 △광역버스 증차 △공영주차장 증설 등이 핵심이다.

특히 격차 해소를 위해 봉담의 교통을 대폭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신분당선 조기 연장 △지하철 3호선 병점·봉담 연장(병봉선) 등이 포함된다. 또 봉담을 세계적 예술도시로 만들기 위해 옛 축산부지에 복합예술타운을 건립하고, KTX봉담역 신설로 전국 관광의 중심지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최영근 후보는 “교통 문제의 혁신적인 발전으로 지역구의 교통 격차를 줄이고, 교통 혼잡을 완화하며, 지역의 발전을 촉진할 것”이라며 “이런 중요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 화성시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람은 바로 본인”이라고 밝혔다.

병점·진안 공약도 눈에 띈다.

권철승 후보는 △GTX-C 병점 연장 조기 착공 △서울 3호선 병점-봉담 연장 △병점-서동탄-동탄 1호선 연장 △병점역 지상철도 지하화 및 복합환승센터, 주차타워 추진 △병점 어린이과학관 개관 및 체육시설 신설 △진안신도시 내 복합문화센터 건립 등 경기 남부 철도교통 중심이자 첨단산업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최영근 후보는 △능1초등학교 신설

△능동역 병점방향 출입구 추가 확장 △국제 규격 수영장 건립 △수원군공공비행장 소음 관련 특별법 제정 추진 △평생행복종합지원센터를 구축하고 병점 행정타운 내 구청 신설도 추진하기로 했다.

진안3기 신도시에 세계적 반도체 기업을 유치하고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등 병점(동부권)을 초일류 반도체 도시로 이끈다는 계획이다.

기배·화산동 발전을 위한 공약도 다양하다.

권철승 후보는 △매송-동탄 도시고속도로 추진 △기배-화산 도시계획도로 확충 △화산1고 신설 △고급산 문화공원 추진 △조정 문화 계승 및 관광벨트 조성 △화산동 체육시설 확충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최영근 후보는 △다목적 체육시설 건립 △서부우회도로 진출입로 개선 △스마트그린시티 개발계획 수립 △고급산 체육공원 조속 실시 및 연계 도로망 △기간전 수질개선 △공영주차장 증설 및 이용 공영화 △마을버스·시내버스 증차 및 운행횟수 증가 △특수도서관 신설 등을 내세웠다.

권철승 후보는 또 지역발전을 위해 능1초, 화산1고 신설, 화산동 테니스장 신설, 병점지역 공동육아나눔터 지원 확대, 봉담 버스교통거점 신설, 지방도 322호선 자안-분천 간 도로 확충 등도 공약으로 내놓았다.

최영근 후보는 와우초·중, 효행초, 화성동화중 등의 과밀학급 해소를 통한 인제 육성도 공약으로 내세웠다.

초등, 중학교를 신설하는 한편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신호등 운영체계 변경 등을 통해 안전한 등하교길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고등학교는 봉담, 화산동에 가칭 화산고교와 봉담고교 2개교 신설 공약을 내놓았다.

서민규 기자 news@hnews.com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두고 화성시정 후보인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후보, 유경준 국민의힘 후보, 이원욱 개혁신당 후보가 동탄신도시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인프라 확충을 위한 교통, 복지, 교육, 문화 등에 관한 공약을 발표했다.

특히 화성시정 후보의 주요 공약으로는 서동탄역 1호선·GTX-C 환승체계 개선, 출근시간 광역버스 추진, 솔빛나루역 신설 및 복선화 추진, (가칭)메타역을 비롯한 동탄신 추가 출구 설치 검토 등을 제안했다.

오랜 시간 동안 주민의 편의를 위해 구축해야 될 인프라 확충을 통해 완성 도시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전용기 후보는 현역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서 화성에서 주민과 소통하며 “주민 삶의 질 향상 실현은 현장 밀착형 해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소통을 통해 듣게 된 주민의 목소리를 공약으로 만들어 냈다.

전용기 후보는 교통 대표 공약으로 △M버스 노선 신설과 증차 및 순채(중간) 출발·좌석예약제 도입 △솔빛나루역 신설 및 복선화 추진 △서동탄역 화성 편입 및 역사 진출입 교통문제 해결 추진 △출근시간 광역버스 추진 △특수버스, M버스 반월교통 혁신 △진안신도시 내 남북 간 대중교통체계 구축 △택시 문제 해결 추진 △동탄반월순환

버스 도입 등 학교 불편 해소, 동탄역 접근 및 GTX-A 탑승 편의 제고 △동탄·반월 특버스 증차 및 노선 확대를 발표했다.

이외에도 반도체산업 육성법 제정, 반도체 특화도시 신설 추진, 반도체 퇴직자 연계 미래인재 멘토링센터 설치 추진, 반도체와 연계한 교육시설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경준 후보는 현 국회의원으로 그동안 경제와 정책 전문가로 지목되는 인물로 “동탄이 교통지옥, 교육은 역차별, 의료 인프라 부족 도시라는 오명을 안고 있는 것은 결국 화성시가 100만 인구에 걸맞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기에 동탄을 분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경준 후보는 대표 공약으로 △경기도 동탄시 설치 법안 발의 △동탄 반월에서 반도체 동반성장 이끌어 낼 것(반도체 설계·제조기업 성장 함께 지원) △기업하기 좋은 동탄시 만들 것(중소기업의 스마트화·디지털화·그린화 지원, 중소기업의 수출 확대 지원, 기업 맞춤형 기업금융 적극 공급 확대) △동탄 삼성고 신설 추진(동탄 지역 인재, 임직원 자녀 위한 자립형 사립고) △동물병원 진료비 표준화 및 소독공제 추진(기초상담 및 검진 지원, 노령견 건강보험 복지 확대 등 반려동물보험 활성화, 반려동물 공원 및 전용시설 확충 약속) △메타폴리스 옆 부지, 복합쇼핑몰 유치(동탄1동 메타폴리스 옆 부지(반송동95번지, 99번지)는 지난 2003년 복합단지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주상복합건물이 조성될 예정이었으나 각종 도시규제·수익성 등의 문제로 사실상 방치된

상태이다) △동탄시 콤팩트 미래 신도시로 발돋움 (신기술 테스트베드 시티 구축 추진)을 발표했다.

이원욱 후보는 기존 화성시를 3선 국회의원으로 12년 동안 활동해 온 정치인으로서 “새로운 개혁신당을 통해 화성시를 ‘규제프리존특구’로 만들어 기업의 창의성이 날개를 달 수 있고 발전해 대한민국의 혁신 변화를 선도하는 도시로 만들겠다”며 이에 맞는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교통 대표 공약으로 △분당선 연장(기흥-동탄테크노밸리-동탄호수공원 노선) 추진 △솔빛나루역 확장 및 동탄신 도시 개통 △신강남선 유치 및 반월역 반영 △GTX-C 서동탄역 차고지 출몰역 신설 △(가칭)메타역을 비롯한 동탄신 추가 출구 설치 검토 △동탄발 SRT 추진 △GTX-A의 삼성역까지 개통시기 단축 △반도체 라인(구) 동탄-부발선 추진을 발표했다.

이외에도 화성드림추진센터 조성, 반석산 문화터널 및 모노레일 동탄역 연결 추진, 반월 복합스포츠타운(실내수영장 등) 조성, 동탄중앙도서관(가칭) 적기 개관, 예당마을 하늘빛공원 내 복합문화시설 건립 추진, 구봉산전통공원, 워터테마파크 패밀리풀(가칭) 및 16호 근린공원 조성 조속 완료, 메타2단계 컨벤션 센터 유치, 롯데백화점(동탄점) 앞 문화복합용지에 오페라하우스 건립 추진, 대학병원 유치, 경기남부 최대 규모의 24시간 어린이 병원 유치, 달빛어린이병원 확충을 통해 오랜 시간 인프라 확충을 기대해 온 주민의 희망을 이루겠다는 의지다.

신홍식 기자 news@hnews.com

Advertisement for SAMIL (에코스텍 | 레미콘 | 아스콘) featuring a construction worker and images of concrete products. Text: 아름다운 환경 풍요로운 미래! 우리모두가 이루고자 하는 소망입니다. www.siconc.com

화성여성새로일하기센터, 여성가족부 장관상 수상



화성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제13회 새일센터 우수기관 및 유공자 포상식'에서 여성가족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화성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3월 28일 서울 마포 중앙도서관에서 열린 '제13회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우수기관 및 유공자 포상식'에서 여성가족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여성가족부는 전국 159개 새일센터를 대상으로

로 취·창업지원, 서비스 제공, 센터운영 등 센터를 대상으로 운영 평가를 실시했다.

이중 화성새일센터는 경력보유여성 취업지원 사업 수행을 통해 서비스제공 부문 우수기관으로 선정과 함께 장관상을 수상한 것이다.

화성새일센터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극정량 경력 보유 여성들의 취업과 고용유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행복한 내일을 응원하는 여성취업전문기관이 되겠다"고 전했다.

한편 화성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출산, 가사, 육아 부담으로 인한 경력보유여성과 취업을 준비하는 미취업여성 대상 취업지원, 취업상담, 직업교육 훈련, 취업 후 사후관리 등 종합적인 원스톱(One-Stop)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여성들의 취업과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신홍식 기자 news@hnews.com

복지재단, ESG 실천 위한 화성시 에코센터 숲 조성



시민의 아낌없는 도움으로 녹색공간 탄생을 위한 화성시 에코센터 숲 조성 및 기념식수 행사 후 단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고원준)은 3일 'APS 탄소발자국 줄이기 캠페인'을 통해 마련된 성금으로 '화성시 에코센터 숲 조성'을 위한 나무심기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에는 APS그룹(회장 정기호), APS시스템주식회사(부회장 김명주),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고원준),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무처장 김효진), 화성시지역주민협의회가 함께 참석해 지속 가능한 생태계 발전을 위해 손을 내밀었다.

이날 행사를 통해 화성시 에코센터 인근에 수수꽃다리, 조팝나무, 영산홍 등 1090주의 나무를 식목해 시민을 위한 풍요로운 녹색공간으로

재탄생시켰다.

정기호 APS그룹 회장은 "우리는 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해 노력하고,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그룹 차원의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한편 화성시복지재단은 다양한 기업들의 수요에 맞춤형 기획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화성시 노인, 아동, 장애인 등 다양한 사회서비스 제공 시설을 대상으로 현장 지원 공모사업, 후원물품 배분을 통한 지역사회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해소 등 나눔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신홍식 기자 news@hnews.com

화성시 작은영화관 "씨네브런치로 독립영화 만나요"

화성시 작은영화관이 커피와 함께 독립예술영화를 감상하는 '씨네브런치'를 운영한다.

씨네브런치는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설립한 독립예술영화 유통배급지원센터 인디그라운드와 한국작은영화관협회가 기획한 기획 상영이다. 시민들이 더 많은 곳에서 독립영화를 만날 수 있도록 매월 독립영화 1편씩을 선정해 소개하고 있다.

올해부터 화성시 작은영화관도 씨네브런치에 참여해 화성시민들이 보다 가까운 곳에서 독립예술영화를 감상할 수 있게 됐다. 첫 순서로 3일 배우리 감독, 권유리 주연의 '돌핀'이 상영됐다.

최원교 화성시 문화예술과장은 "지난해 12월 '2023 작은영화관 기획전'에서 독립예술영화를 선보인 데 이어 씨네브런치를 통해 시민들이 본격적으로 독립영화를 즐길 수 있게 됐다"라며 "화성시 작은영화관을 방문하셔서 향긋한 커피와 함께 영화를 감상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매월 선정된 독립예술영화 및 상영시간표는 화성시 작은영화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람료는 일반 영화와 동일하게 일반 7000원, 65세 이상 어르신·청소년·군인 6000원, 장애인·국가유공자 5000원이다.

한편 화성시 작은영화관은 화성시 서부지역의 영화문화 향유권 확대를 위해 화성시가 2022년 12월 마도문화센터에 개관한 총 150석 규모의 영화관이다.

서민규 기자 news@hnews.com

씨네브런치
"지금 당시에 '하이피어브'"

시네브런치
"지금 당시에 '하이피어브'"

감독 배우리
출연 권유리, 김애연, 현우석, 박미진, 심희섭
제작사 한국영화이카데미(KAFA)
배급사 (주)인도엔터테인먼트

#드라마#가족#멜로#인생#하이피어브

씨네브런치는 월요일 1회 한국 독립예술영화 상영하는 프로그램으로 커피 한 잔이 무료 제공됩니다.

#상영시간표 #상영시간표 #상영시간표 #상영시간표 #상영시간표

씨네브런치는 한국영화진흥위원회에서 후원하며, 지원영화관 인디그라운드기 후원합니다.
인디그라운드는 한국 독립 예술영화의 아낌없는 지원을 계속하기 위해 kofic 후원금에 따라 상영하고 있습니다.

"화성 산모면 맘튼튼 축산물 꾸러미 받아요"

화성시가 산모의 건강 회복을 돕고 국내산 축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맘튼튼 축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2024년 연내 출산한 산모 중 출산한 아이를 화성시에 출생신고한 산모에게 맘튼튼 축산물 꾸러미를 지원한다. 꾸러미는 5만원 이내 경기도 G마크 및 무항생제 인증을 받은 한우·한돈 등 우수 축산물로 구성된다.

지원 규모는 산모 6550명으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산모는 연말까지 경기민원24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접수하면 되며, 꾸러미 3가지 구성안 중 1개를 선택할 수 있다.

이병상 화성시 축산과장은 "우수 축산물 꾸러미 지원을 통해 국내산 축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축산물 소비를 촉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산모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맘튼튼
축산물 꾸러미 지원 신청하세요

지원대상: 2024년도에 출산 후 화성시에 출생신고한 산모

신청기간: 2024. 4. 2. ~ 2025. 1. 31.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

신청방법: 경기민원24 사이트(https://gg24.gg.go.kr)에서 신청

지원내용: 산모 1인당 5만원 이내의 축산물 꾸러미 공급(예산)

꾸러미 구성 (각 1개)

- 1번 세트: 한우 양지 + 한우 불고기
- 2번 세트: 한우 양지 + 서울갈비
- 3번 세트: 한돈 삼겹살 + 한돈 육상

한우 양지 국거리 500g/개, 한우 양지 국거리 500g/개, 한우 양지 국거리 500g/개
한우 불고기 500g/개, 한우 서울갈비 350g/개, 한우 불고기 500g/개
한돈 삼겹살 200g/개, 한돈 삼겹살 200g/개, 한돈 육상 200g/개

문의: 화성시 축산과 축산위생팀 031-5189-2495

화성시체육회-메디피움 동탄의원, 체육인 건강증진·보건 향상 업무협약



박종선 화성시체육회장(좌측)과 박영상 메디피움 동탄의원 부원장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화성시체육회는 29일 화성종합경기타운 인터부실에서 메디피움 동탄의원과 화성시 체육인의 건강증진, 보건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박종선 화성시체육회장, 박영상 메디피움 동탄의원 부원장 등 관계자가 참여해 양 기관의 상호협력력을 다졌다.

협약 체결에 따라 화성시체육회와 메디피움 동탄의원은 제반 진료 협력 구축을 통해 화성시 체육인들에게 다양한 의료 서비스와 할인 혜택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 관련 정보교류, 교육·연

구 등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화성시 체육과 건강증진 등 의료체계 공동발전을 추진 협의하기로 했다.

박종선 화성시체육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다양한 방면에서 우리 체육회와 메디피움 동탄의원이 긴밀히 협조·협업해 화성시 체육인들의 건강증진과 체육, 아울러 메디피움 동탄의원의 의료증진 등 발전에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서민규 기자 news@hnews.com

제13회 기배벚꽃축제 성황리 개최



제13회 기배벚꽃축제에서 태권도 공연이 열리고 있다.

기배동 사회단체협의회 주최, 기배동 주민자치회 주관으로 열린 '제13회 기배벚꽃축제'가 30일 기배역사공원에서 개최됐다.

기배벚꽃축제는 주민이 직접 심고 가꾸어온 벚꽃나무 길을 축제 장소로 활용해 지역·세대·문화 간 어울림과 화합을 도모하는 주민 주도의 축제다.

이날 행사에서는 △기배동과 기배역사공원을 주제로 한 OX퀴즈 △농악, 밸리댄스 등 문화공

연 △초대가수 홍승현, 유이란, 박우철, 김다운의 축하공연 △벚꽃핀·벚꽃액자 만들기 △각 나라 음식을 맛볼 수 있는 다문화 체험부스 등이 운영돼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됐다.

김성호 기배동 주민자치회장은 "매년 참여자가 늘고 있음에도 아무런 사고 없이 마무리 된 것은 주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 덕분"이라며 주민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푸드통합지원센터, 로컬푸드 든든간식꾸러미 후원

자원봉사센터 통해 취약아동에 전달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대표이사 이원철)는 29일 화성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김세제)와 연계해 관내 공동생활가정 거주 취약아동 30가구에 '화성로컬푸드 든든간식꾸러미'를 후원했다.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와 화성시자원봉사센터는 지난 2월 28일 지역사회 사회공헌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번 후원은 양 기관의 첫 사회공헌 연계 협업이다.

후원꾸러미는 화성로컬푸드 직매장에 출하되

는 우리밀 쿠키, 마들렌 쿠키 등 간식 8종으로 구성됐다. 후원꾸러미는 화성시자원봉사센터를 통해 취약아동들에게 전달된다.

김세제 화성시자원봉사센터 이사장은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가 제공해준 '든든간식꾸러미'를 통해 아이들에게 따뜻한 마음과 간식을 제공할 수 있게 되어 매우 행복하다"라며 "아이들이 자립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원철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대표이사는 "어려움을 가지고 생활하는 아이들에게 희망과 행복을 전달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라며 "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와 화성시자원봉사센터가 연계를 통해 어려운 아이들에게 간식꾸러미를 전달했다.

래의 희망인 아이들이 주위에 있는 어른들과 기관의 보살핌으로 올바르게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재단 사회공헌 활성화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등 전반적인 시공을 지원한다. 양 기관은 이날 지원 대상자를 선정해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이석진 친환경복합창 주식회사 대표는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힘을 보태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라며 "지원 규모 범위 내에서 최대한 많은 주택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집수리 봉사를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홍선 화성시 지역개발사업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주거 취약계층의 생활 불편 해소 및 환경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향후에는 좀 더 다양한 단체가 집수리 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에도 힘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화성시-신환경복합창, 집수리 봉사 MOU



오홍선 화성시 지역개발사업소장(우측)과 이석진 신환경복합창 대표가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화성시는 지난달 27일 지역개발사업소에서 신환경복합창 주식회사대표 이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집수리 봉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자부담금 등으로 인해 도시재생 뉴딜사업인 '집수리 지원사업'에 신청하지 못한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노후된 주택 창호 보수와 교체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시는 집수리 봉사 참여 확대를 위한 홍보 및 대상자 발굴 등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신환경복합창 주식회사는 현장 점검을 통한 대상자 선정 및 노후된 주택 창호의 보수·교체

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남부, 세교요양병원 동행기업 현판식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남부지부(지부장 이현미)는 29일 김영성 세교요양병원 대표, 이현미 지부장, 조용환 경기남부지부협의회 명예회장, 김원규 일상회복지원위원회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세교요양병원을 '동행기업 제52호'로 선정하고 현판식을 실시했다.

지부는 형사처벌·보호처분 대상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해 재범을 방지하고 안전한 사회 조성

을 목표로 2021년부터 '동행기업' 제도를 실시 중이다. 이날 세교요양병원은 52번째 동행기업으로 등재됐다.

김영성 대표는 "법무보호사업을 후원할 수 있게 되어 기쁘고 앞으로도 보호대상자 지원 및 법무보호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꾸준히 봉사를 이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서민규 기자 news@hnews.com

경기도 수소융합클러스터 협의체 발족

화성시 등 19개 기관 참여, 육성·협력 방안 논의



경기도 수소융합클러스터 협의체 발족식 및 제1차 정기회 후 참석자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경기도는 2일 경기바이오센터에서 '경기도 수소융합클러스터 협의체' 발족식 및 제1차 정기회를 열고 수소산업 육성과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협의체에는 화성시, 현대자동차그룹, 아주대학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가스안전공사, 안산시 등 19개 기관이 함께했다. 경기도에는 전국 2798개 수소관련 사업체 중

761개 사가 모여 있다. 경기도는 이런 수소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바탕으로 수소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교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협의체를 구성했다.

정한규 경기도 첨단모빌리티산업과장은 "산업체와 교육기관, 연구기관, 공공분야 등 관련 기관이 모두 참여한 만큼 각 분야의 다양한 의견을 모아 수소에너지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라며 "경기도를 대한민국 수소 경제의 중심지로 만들 수 있도록 협의체를 적극 운영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친환경 수소에너지 자족 소도시 '미니 수소도시 조성사업'에 참여할 시군을 30일까지 공개 모집하고 있다. 미니 수소도시 조성사업은 민선 8기 경기도 공약사항인 '수소융합 클러스터 조성'에 따른 것이다. 수소 생산·유통·활용 등 전 분야 기반 시설에 대해 지원하되, 기초지자체가 자체 특성을 반영해 자율적으로 사업을 계획하고 신청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도는 지난해 용인을 첫 미니 수소도시로 선정한 데 이어 올해 2개 시군을 '미니 수소도시'로 추가로 선정해 3년간 도비 1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서민규 기자 news@hnews.com

경기도의회 Point

도의회, 율레조회 대신 '공감음악회' 개최

직원 간 소통·공감 프로그램 마련

경기도의회(의장 염종현)가 1일 의장과 전 직원이 함께 어울린 소통·공감 프로그램인 '제1회 의회공감'을 개최했다.

의회공감은 일방적 의사전달 방식의 율레조회를 대신해 수평·자율적 조직문화를 형성하려는 취지에서 추진된 분기별 '의회 소통 프로그램'이다.

의회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한 공모와 투표를 거쳐 선정된 명칭에는 '의회 부서 및 직원 간 이해와 공감의 시간'이라는 뜻이 담겨 있다.

이날 염종현 의장은 "율레조회를 개편하며 가장 크게 고려했던 '이해'와 '공감'의 중요성이 새롭게 탐바꿈한 명칭에 오롯이 담겨 있어 뜻깊다"라며 "직원 여러분의 선택으로 결정된 명칭인 만큼 애정 어린 마음을 갖고 이 시간에 참여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이번 첫 의회공감은 염종현 의장과 의회사무처 직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내 실력과 밴드 '코리아안즈'를 초청해 '공감음악회'를 개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공감음악회는 경기아트센터의 '찾아가는 문화복지 공연 문화센터' 사업의 지원을 받아 '음악과 함께하는 치유와 힐링의 시간'을 주제로 꾸러졌다.

코리아안즈는 실력적이고 과감한 기획과 편성으로 클래식 공연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해 온 관악연주밴드로, 무대에 올라 뛰어난 연주력을 뽐내며 감미로운 선율을 선



염종현 의장이 코리아안즈 밴드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했다. 두 명의 트럼펫 연주자와 호른·트롬본·튜바·드럼 연주자 각 1명씩 총 6명으로 구성된 밴드 멤버들은 40여 분 동안 불철에 걸맞은 '영화음악 레퍼토리'를 색다른 느낌으로 편곡해 다채롭게 전달했다.

'해리포터', '라라랜드' 등 유명한 영화음악은 물론,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하울의 움직이는 성', '토이 스토리'와 같이 대중에게 친숙한 애니메이션의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OST)이 잇따라 연주되자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직원들은 개화의 계절인 봄을 형상화해 꽃 모양으로 배치된 좌석에 앉아 편안하게 공연을 감상하며 연주자 끝날 때마다 큰 박수를 보내는 등 즐거움을 만끽했다.

의회사무처 관계자는 "직원들이 직장에서 휴식과 치유의 시간을 갖고 재충전하며 함께 할 수 있도록 의건을 두루 반영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할 계획"이라며 "직원들이 의회공감의 활동을 통해 협력과 소통의 지를 더욱 단단히 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화성 등 8개 시군, 지하수 보전관리감시원 운영

광역지자체 중 최초 지속가능 지하수 위해

경기도는 4일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지속가능한 지하수 보전 관리를 위해 화성시 등 8개 시군에 '지하수 보전관리감시원'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하수 시설 인허가 및 관리는 시군 담당 업무지만 시설 수 대비 인력 부족으로 관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경기도는 지하수 보전관리감시원 11명을 화성·남양주·광주·이천·안성·여주·동두천·양평 등 8개 시군에 지원해 지하수 시설 현장 조사와 미등록 지하수 시설 등의 문제를 조기 발견해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지하수 보전관리감시원 사업과 연계해 방치공 원상복구 사업도 추진한다. 방치공은 개발 실패 및 사용이 끝난 상태로 방치돼 지하수 오염의 원인으로 꼽혀왔다. 현장에 파견된 지하수 보전관리감시원이 지하수 방치공을 발굴하고 이에 대한 원상복구를 실시해 지하수 오염을 예방할 계획이다.

서민규 기자 news@hnews.com

김동연 지사 "GTX-A·C 지제역 연장 지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일 GTX A·C노선 연장과 관련해 평택지제역을 정장선 평택시장 등 관계자와 함께 방문해 주요 시설을 확인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일 평택 지제역을 방문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C노선의 평택 지제역 연장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평택 지제역에 GTX A노

선하고 C노선을 연장하는 방안이 진행 중인데 아주 기쁘게 생각한다. 빨리 추진이 돼서 경기 남부 교통 문제 해소와 발전을 위한 큰 인프라가 깔리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면서 "평택이 경기

도로서는 아주 중요한 도시고 발전 가능성이 많다. 지금부터 계획을 잘 세워 GTX-A, C 연장이 조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경기도와 평택시가 잘 협의해 나가자"라고 말했다.

GTX A노선은 운정~삼성~수서~동탄까지 85.5km로 지난 3월 30일 수서~동탄 구간이 우선 개통했으며, 2028년 전 구간 개통 예정이다. GTX C노선은 덕정부터 삼성 등을 지나 수원까지 86.46km를 연결한다. 지난 1월 착공해 2028년 개통이 목표다.

만약 GTX A·C노선이 평택 지제역까지 연장된다면 지하철로 약 95분 소요되는 삼성-지제 구간을 GTX A노선으로는 33분, GTX C노선으로는 44분 만에 이동할 수 있어 도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2월 GTX A노선(운정-동탄)을 평택까지, GTX C노선(덕정-수원)을 동두천·평택까지 연장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화성시, 평택시, 오산시, 동두천시와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후계·청년농어업인 지원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강태형 도의원 정착 유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강태형 경기도의원

유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

조례안의 주된 내용은 청년농어업인정착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규정과 청년농어업인을 위한 주거·문화·복지 지원, 농어업기술·경영 교육 지원, 창업 또는 취업 지원, 영농·영어 체험 지원이다.

강태형 의원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들의 지원 정책이 일부 있으나, 청년농어업인들은 여전히 농어촌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청년농어업인들을 중점적으로 지원해 이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더 나아가 지속가능한 농어촌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조례안은 17일 열리는 '제374회 임시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Since 2010

보건복지부 인증 의료기관

척추·관절 정형외과 / 신경외과 / 일반외과 / 재활의학과 / 내과
가정의학과 / 영상의학과 / 마취통증의학과 / 건강검진센터

유효기간
(2022.12.28~2026.12.27)

14인의 전문 의료진

보건복지부 인증 의료기관

무균 수술실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

노인인공관절 무릎 수술 지원 / 긴급의료지원 사업

신재흥 병원장

척추내시경 수술 3,000례(2023년 기준)
RIWOSPINE 전체내시경 MASTER CLASS

동탄시티병원

| 진료 문의 ☎ 031.8015.3333
| 주소: 경기 화성시 동탄지성로 113

시로 읽는 화성 10



휘민 시인/ 화성작가회의 사무국장

1919년 4월 15일 제암리를 기억하다

- 손택수의 '꽃의 운동'

4월이다. 마치 경쟁이라도 하듯 앞다투어 봄꽃들이 피어...

꽃은 운동이다 가만히 있을 때조차도 꽃에만 머물 수 없는 빛깔이 넘쳐 꽃 들레 바...

어쩌면 꽃 지도 주체할 수 없는 뿌리를 권 대지의 숨결이 꽃을 문으로 들고나오는 것...

해마다 봄이면 꽃을 바친다 꽃처럼 쓰러져간 사람들이 꽃으로 환생을 하는 것이다...

망국의 비애가 꽃에게도 있다면 것처럼 슬픈 일도 없겠지

제암리에는 제암리에만 있는 방언이 있었다고 한다 옛 마을과는 다른 울림의 말들이...

색의 동력학은 그런 것, 햇살에 반응하는 명울들의 화답과 시차를 충분히 존중하는 것...

해마다 봄날은 와서 묻는다 왜 꽃을 밟는 것이 사람을 밟는 일인지, 왜 사람을 밟는 것이...

저마다의 꽃빛으로 운동하는 꽃다발을 바치며, 여전히 오고 있는 빛을 향하여

손택수, '꽃의 운동 - 제암리' 전문

손택수 시인의 '꽃의 운동'은 꽃이 지닌 운동성을 제암리 독립운동과 나란히 두고 제암리...

전문가 칼럼 화성춘추 (華城春秋) ... 231

전기차 배터리는 무엇인가?



문학훈 오산대학교 스마트자동차과 교수

전기차 배터리는 주행거리에 아주 중요한 요소로 우리가 핸드폰을 사용할 때 사용되는 배터리도...

그렇다면 자동차 배터리의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 가장 최소 단위로는 셀(Cell)이 있고...

일반적으로 전기차가 800V로 작동된다면 실제

사용되는 유효전압은 80% 정도의 전압이 된다. 즉 800V의 유효전압인 640V가 실제 전기자동차에서...

전기차 배터리는 (+)와 (-), 즉 양극재와 음극재로 구분되며 양극재와 음극재가 서로 접촉되지...

배터리의 형상으로 구분하기도 하는데 파우치형, 원통형, 각형으로 구분할 수가 있으며 각각의 장단점이 있어 전기차에 알맞은 구조로 채택해...

원통형은 기존의 대량 생산하던 표준화된 사

이므로 생산이 용이하다는 특징이 있으며, 각형 배터리는 단단한 패키징으로 외부 충격에 강하며...

그렇다면 문제가 되고 있는 전기차 배터리의 화재 발생은 어떤 원인으로 발생하는가? 기본적으로...

이러한 것도 연구를 통해 배터리 내부에서 진압이 가능하도록 화재 시 내부 소화기를 통한 진압을...

hmoon@osan.ac.kr

기고

나의 살던 고향 매향리는 미군 전투기 날던 전쟁터였다 ③



전만규 매향리 지킴이

매향리는 남북 분단의 냉전 이데올로기의 표상이며, 외세와 국가 권력이 합작해 저지른 부당한 폭력에...

물때새, 저어새, 알락꼬리 마도요 등 각종 철새들이 돌아왔다. 쿠니스격장 터에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유소년 야구장인 '화성드림파크'가...

평화, 생태공원 및 평화기념관은 자연과 인간이 함께 공존하는 공간으로 전쟁과 파괴, 포연 속의 비탄에서 생명, 평화의 매화 향기가...

매향리 평화생태공원과 함께 화성호 습지의 역사물과 각종 철새들이 함께 만드는 아름다운 풍경은 천혜의 힐링 공간이 될 것이다.

매향리 갯벌의 수산자원 생산 외에 오염물질 정화, 탄소흡수, 재해방지, 생태관광 및 자연 휴양의 문화적 가치는 신이 내려준 축복이다.

은 약 2200억원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수원시의 일부 몰지각한 정치인들과 토건 세력들이...

화성시 갯벌과 습지는 우리나라가 보유한 최대의 보물이고 2000만 수도권 시민들의 습터가 될 천혜의 자연 자원이며, 수도권 시민들에게 제공되는...

매향리 갯벌과 화성호 간척지는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줘야 할 소중한 자산이므로 우리 시민 모두가 관심을 갖고 대동단결함으로써 끝까지 지켜...

대리운전만 이용해도 어려운 이웃을 돕는 마중물대리. 연말정산용 기부금영수증 발급. 5인 이상 중소기업 법인 후불 대환영!

화성신문 문화사랑나눔. 문화비 소득공제 가능. 공제 대상자. 신문후원 1구좌(1부) - 금액 100,000원.

조영호 교수



김치가루 양념을 성공시킨 혁신리더십



조영호
아주대학교 명예 교수

이 아니라 문화라는 사실을 깨우쳤다. 거기서 자신감을 얻은 안태양 씨는 떡볶이 장사를 시작했다. 포장마차에서 떡볶이를 만들어 팔면서 한국 문화를 전파하려 시도했다. 어느 정도 인기를 얻으면서 그 장사는 중국인 사업가에게 넘기고 귀국하여 본격적으로 K-food 사업에 뛰어들었다. 떡볶이도 좋지만, 한국을 대표하는 음식 김치로 정면 승부를 하고 싶었다. 그러나 김치를 세계시장에 내어놓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다. 고민 끝에 물류 문제, 보관 문제, 활용 문제를 모두 해결하려면 가루로 만들어야 한다는 결론을 얻었다. 그러면서 김치를 한국스토리만으로 팔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했다. 세계시장에서 세계인들의 입맛을 사로잡으려면 김치의 고유성은 유지하되, 철저하게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한국문화의 스토리를 몰라도 즐기는, 일회성이 아니라 일상성이 되는 K-food를 개발하고 싶었다.

안태양 씨는 무작정 미국으로 떠났다. 에어비엔비를 통해 실제 미국 가정집을 일주일 단위로 살아보기로 했다. 각 가정에는 무슨 소스가 있는지 살펴보고 근처 월마트나 홀푸드마켓 등 대형 마트에서 장을 보고 음식을 조리해 먹으면서 그 나라의 식생활을 이해하려 했다.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미국뿐 아니라 일본·유럽 등도 돌아다녔다. 그러던 중 그는 신맛에 주목하게 됐다. 외국 사람들이 먹는 각종 소스를 먹어보니 유독 신맛이 강했다. 왜 그럴까? 음식에서 신맛은 식욕을 돋우는 데에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한국인에게 김치가 그 역할을 해주는 외국에서는 다른 소스가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이었다. 김치의 시장성에 확신이 느껴졌다.

때마침 미국에서는 유산균 열풍이 일고 있었고 김치 유산균에 주목하고 있었다. 서양 사람들

이 주식으로 하는 밀가루에는 글루텐이라는 성분이 있다.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면 복통이나 만성피로를 유발하는 글루텐을 분해하는 데 김치 유산균이 효과적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김치의 가치를 인정하기 시작했다. 홀푸드마켓에서 매년 나오는 리포트에도 김치 유산균이 늘 상위 10위 안에 언급되고 있었다. 그래서 제품에 유산균을 많이 넣는다면 비싸도 소비자들이 구매할 것 같았다.

또 하나 음식에서 중요한 트렌드는 비건(채식주의)이었다. 김치는 기본적으로 채식 음식이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다. 젓갈 말이다. 젓갈을 없애야 비건이 되는 것이었다. 하지만 젓갈을 없애면 고소한 맛도 사라지고 유산균도 달라진다. '식물성 유산균'을 찾아야 했다. 백방으로 수소문한 끝에 영남대 박용화 교수가 개발한 특허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 박 교수는 10여 년 전에 이를 개발해서 특허를 얻어두고 있었으나 누구도 찾는 사람이 없어 본인도 관심을 끄고 있었던 것이었다. 결국 박 교수의 도움을 얻어 완전 비건 김치를 만들고 드디어 비건 인종까지 받았다.

이런 우여곡절 끝에 3년 만에 시장에 나온 김치 시즈닝. 안 대표는 포기해야 하나 싶은 순간도 많았다. 개인 스타트업에서 아무 수입 없이 3년을 기다린다는 것은 피 말리는 일이었다. 혹자는 안 대표의 욕심이 성공 요인이라고 한다. 그러나 안 대표는 욕심만으로 비즈니스 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말한다. 욕심이 아니라 살아있는 데이터가 생명이라고 그는 말한다. 그래서 안 대표는 계속 고객들과 대화하고, 각종 보고서를 읽는다. 그리고 자신들이 한 일에 대해 고객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실시간으로 들여다본다. 안 대표의 혁신은 데이터다.

choyho2@naver.com

사설

총선, 낙선자의 공약에 집중하자

5~6일 사전투표가 실시되며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마무리단계다. 어느 당, 어떠한 후보가 당선되든지 축하의 말을 전하며 앞으로 4년간 화성시와 국가 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

이번 총선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첫 국회의원 선거다. 화성시로서도 특례시를 맞이하는 국회의원선거, 4개 선거구 시대의 처음이기도 하다. 당연히 화성시민들의 기대는 클 수밖에 없다. 계속되는 불황 속에서 지역 경제와 국가 경제회복에 기여하고 올바른 국민의 총복으로서 역할을 다해주시기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난제가 가득한 화성시로서는 갑, 을, 병, 정 각 지역구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의 역할이 더욱 크다. 화성시장이 시장을 책임지고는 있지만 강력한 정치력을 발휘하는 것은 국내 정계 구조상 어렵다. 동-서 균형발전을 이루고, 철도 등 대중교통망을 확충하며, 화성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국회의원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 화성시장 등 화성시정과 4명의 국회의원이 한 뜻으로 화성시 발전을 위한 행정력과 정치력을 모아야만 해묵은 화성시 난제 해결이 가능해진다. 일례로 수원시의 경우 수원군공항 이전을 위해 시청과 전 국회의원이 선거때만 되면 같은 목소리를 낸다. 목적이야 어떻든 하나의 목소리가 다른 여론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점에서 화성시로서는 걱정이 태산이다. 당을 넘어 지역을 대표하는 정치인으로서 화성시민을 위해 중지를 모으고 올곧은 목소리를 낼 때 해묵은 과제를 털어낼 수 있다. 가장 먼저 수원시의 군공항 이전 시도에 대해 이

제는 전 국회의원인 힘을 모으고 공동대응

하자고 권의한다. 또 하나 당부하고 싶은 것은 낙선자의 공약에도 관심을 기울이자는 것이다. 한국매니페스트실천본부가 21대 지역구 국회의원 251명을 대상으로 '공약이행도 및 의정활동' 평가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공약완료율이 2023년 12월 말 기준으로 51.83%에 그쳤다. 공약완료율이 절반을 겨우 넘은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현실성이 없는 공약도 많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일단 공약으로는 채택했지만, 실제로 실행은 어렵거나 인기영합적인 정책이었거나 한 그러한 공약을 말한다. 특히 첫 출마하거나 타 지역에서 온 정치인의 경우 지역에 대한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공약을 채택하기도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낙선자의 공약을 자세히 들여다보아야만 한다. 같은 공약이라도 보다 현실성이 있거나 방법론적으로 더욱 나은 방향일수도 있다. 미처 깨닫지 못한 지역 발전 방안을 발견할 수도 있고 지역민의 절실한 외침을 들을 수도 있다.

매번 강조하지만 화성시에는 해묵은 현안들이 너무나 많다. 설명한 군공항이전 문제 뿐 아니라 동-서 균형발전, 난개발 해결, 교통망 확충 등은 모두 몇 번의 선거에서도 현안으로 많은 논의와 공약이 만들어진 분야다. 자신의 공약 이행률에 집착하지 말고, 화성시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에 힘을 기울이기를 기대한다. 화성시 갑, 을, 병, 정 지역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화성시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기대한다. 처음으로 가진 4명의 화성시 국회의원의 첫 행보가 화성시 발전을 위한 '중지 모으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장동선 칼럼 | 예술과 도시 이야기 3

다름은 아름다움의 필요조건이다



장동선
소다미술관 관장

아마도 예술가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 하나가 자신의 작품이 누군가의 것과 같다는 말이 아닐까? 예술가들은 일생을 거쳐 자신만의 표현법을 찾고 '다름'을 유지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한다. 다름은 자신의 정체성이며 아름다움의 필요조건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매일 듣는 음악은 어떠한가? 아름다운 음악이라는 것은 서로 다른 음들이 모여 조화를

이룰 때, 우린 아름답다고, 그것을 통해 영감을 받는다. 한가지 음만이 유일하거나 크다면, 우린 음악이라고 부르지도 않을 것이다. 우리는 모두 자신을 다르게 표현하고, '네'가 아닌 '나'로 있으려고 사회에서 계속적인 투쟁을 벌인다.

그럼 자연은 어떻게? 침팬지 박사도 유명한 제인 구달의 '생명의 그물망'의 비유처럼 자연은 저항력과 지속 가능성을 위해 포용과 진화를 통해 생물다양성을 지켜나간다. 다름은 이렇게 아름다울 뿐 아니라 균형을 맞추는 힘을 가지고 있다.

인류의 진화를 통해 1만 7000여개의 색상을 구분할 수 있는 인간의 눈은 다양한 색이 모여 만든 컬러 팔레트를 보면 아름다움을 느낀다. 여러 다른 색들이 모인 색상 팔레트의 '다름'에는 위계가 없다. 색이 다르다고 말하지, 차이가 난다고 말하지 않는 이유이다. '다름'은 다른 조건들을 동일하게 인정할 때 구분의 기준이 된다.

반면 '차이'는 낮고 적음, 높고 낮음과 같이 위계

를 통해 차별성을 갖는다. 즉 가지고 있는 조건으로 인해 할 수 있음과 없음이 결정된다. 우리는 다름을 원하지만, 차이는 두려워한다. 차이가 나면, 우리가 속한 무리에서 할 수 없는 존재(disabled), 의존적인 존재, 배제되는 존재가 되는 경향 때문이다.

여성학을 연구하는 김 날은은 그의 저서 '장애의 역사'에서 장애란 사회에서 무엇을 최고의 가치로 두느냐에 따라 계속 변화하는 개념으로 미국의 역사를 볼 때, 시대에 따라 여성, 이주민, 원주민, (아프리카계)노예를 장애로 분류했으며 그들의 권리를 박탈했다고 한다. 즉 장애라는 개념은 그 시대 사회의 기능이나 역량을 통해 규정된다. 사실 그리 긴 역사도 아닌 것이 놀랍다.

그럼, 현재는, 가까운 미래는 어떠한가? 인공지능(AI)과 휴머노이드 로봇이 우리의 물리적 어려움과 노동을 해결해 주는 것을 넘어서, 인간 고유의 분야로 여겨졌던 창작과 생산, 그리고 돌봄을 대신(체)해 가고 있지 않은가. '만물의 영장' 류의

위계적인 사고방식에서 이런 미래는 우리 종의 위협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

SF소설가 천산란 작가의 '천 개의 파랑'에서는 효율성 없는 것을 버리고 배제하는 우리가 스스로 쌓아놓은 인간 중심적, 비장애 중심적인 믿음 체계에서 경제성과 생산성이라는 기준에서 배제된 나약한(disabled) 존재들이란 척추성 소아마비로 휠체어를 탄 소녀, 인간의 즐거움을 위해 달리는 경주마가 아니라, 사회의 변화에 앞서가지 못한 이들, 후천적으로 재해나 사고로 기능을 상실한 이들, 즉 우리 모두가 아니냐는 질문을 던진다.

2017년 기준 장애인 88%가 후천적 장애라는 것, 그리고 초고령사회로 급발전하고 있는 한국에서, 우리가 차이의 편견으로 생명을, 환경을 바라보고 있지 않은지 질문할 때이다.

봄꽃들로 아름다운 지금, 불편한 질문을 할 수 있는 최적의 공간이 있다. 현재 소다미술관(화성시 안성동)에서 화성시 지원으로 장애를 다양성의 관점으로 보는 기획전시회를 오는 4월 20일까지 진행한다. 올해 3년째를 맞이하는 'Palette: 우리

가 사는 세상 2024'는 장애·비장애 작가들 함께 회화, 영상, 설치 등 다양한 예술 매체를 통해 모두 다른 작가들의 이야기를 전한다. 전시는 다양한 색이 모이고 섞여 아름다운 컬러 팔레트를 만드는 것처럼, 우리가 사는 세상에 고감과 이해를 통해 따뜻한 공감을 경험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화성의 정론지 화성신문

구독료를 납부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화성신문은 여러분의 구독료로 만들어집니다

월구독료 1만원 ※자동이체를 희망합니다

계좌번호 : 농협 351-0076-7779-73 (주)화성뉴스 문의 (031)232-1980

- ▲국립중앙도서관 ▲유태연 ▲화성시선거관리위원회 ▲병점신협 ▲김겸 ▲화성시남부노인복지관 ▲신동아전자(주)2 ▲경기신용보증재단 ▲(주)남경 ▲진석범 ▲황정화 ▲김영미 ▲최선덕 ▲연돈원 ▲박대선 ▲석우초등학교 ▲마도기업인협의회 ▲(주)화성합동 ▲이호경 ▲(주)마중물대리 ▲(주)해인샌드 ▲대한토지개발 이명후 ▲오보환 ▲원영현 ▲(주)나앤나 ▲진양테크 ▲(주)한서정밀 ▲양진준 ▲김정아 ▲(재)화성산업진흥원 ▲(주)신양메카텍 ▲(주)씨엔원 ▲(주)에스엠텍 ▲(주)유림솔루션 ▲(주)유앤아이디앤씨 ▲(주)인천이피에스 ▲(주)자트 ▲(주)정우테크닉스 ▲(주)태성 ▲(주)한국티알 ▲아성로지텍 ▲k요양병원 ▲경기남부지부 ▲고태선 ▲광고세무법인화성 ▲구영환 ▲김가은 ▲김근영 ▲김나림 ▲김병균 ▲김승현 ▲김은희 ▲김종복 ▲김희만 ▲노작홍사용문서관 ▲동탄총무과 ▲박용섭 ▲배정민 ▲사회공헌 ▲상원산업(주) ▲서신초등학교 ▲성산초등학교 ▲시흥건설 ▲신호정 ▲아파트자치신문 ▲안대진 ▲안대진 ▲안수석 ▲안용중학교 ▲안태민 ▲에스엔에스필텍(주) ▲와이텍주식회사 ▲우림우레탄 ▲유용근 ▲유해국 ▲윤시연 ▲윤태하 ▲이동목욕 ▲이미향 ▲이산고등학교 ▲이상윤 ▲이호현 ▲전문상담봉사 ▲정남중학교

동탄시병원, 대한적십자사에 후원금 전달



'화성시 위기가정 지원을 위한 후원금 전달식' 후 관계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화성시 위기가정 지원을 위해 사용될 예정

동탄시병원(병원장 신재홍)은 1일 '화성시 위기가정 지원을 위한 후원금 전달식'을 열고 후원금 300만원을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에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김미영 동탄시병원 행정원장과 송상규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남중부봉사관장, 문천식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화성지구협의회장을 비롯한 양측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동탄시병원 5층 컨퍼런스실에서 진행됐다.

동탄시병원은 개원 이래 꾸준한 지역사회 건강 증진과 복지·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관내 병원급 의료기관들과 '화성시 의료나눔 봉사단'을 결성해 화성시와 취약계층 건강 돌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취약계층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사업을 진행하는 등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이어 오고 있다. 이날 대한적십

자사 경기도지사에 전달한 후원금 300만원은 화성시 위기가정 지원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대한적십자사는 재난구호, 공공의료, 남북 교류, 혈액 등의 사업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인도주의 기관으로,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위기가정을 발굴해 생계/주거/의료/교육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하고 있다.

김미영 동탄시병원 행정원장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위기 가정에 따뜻한 위로와 도움이 됐으면 한다. 앞으로도 지역 사회와 취약계층을 위해 더욱 노력을 기울이고, 나눔문화 확산에 앞장서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동탄시병원은 보건복지부 인증 의료기관으로(2022.12.~2026.12), 척추·관절 정형외과, 신경외과, 일반외과, 재활의학과, 내과, 가정의학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건강검진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신호연 기자 news@ihnews.com

환경재단-자원봉사센터, 생태·환경 업무협약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이 화성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김세제)와 2일 비봉습지공원 전망대에서 화성시 생태·환경 분야 교류 및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정승호 대표이사, 김세제 이사장, 최길자 비봉면지원단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생태계 파괴 등 기후변화에 대한 위기의식을 제기하고, 시민이 환경 보전을 위해 직접적으로 참여할 방안 마련에 나설 것을 다짐했다.

구체적으로 생태 보전을 위한 공동 봉사활동을 추진한다. 화성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자원 연계 및 협력, 외래식물·교란종 퇴치를 위한 봉사단 운영 및 협력, 기타 봉사활동 및 자원 연계 등 공동 사업 추진 등이 주요 사업이다.

정승호 화성시환경재단 대표이사는 "앞으로도 화성시의 우수한 생태 자원의 보전을 위해 유관기관들과 적극 협력하고 교류해 생태복지 실현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인재를 찾습니다

(문의 : 화성시일자리센터 031-5189-4211~3)

회사명	소재지	모집직종	인원	근무형태	급여
(주)화성여객	화성시 안성남로	버스운전원	60	2교대	연봉 3,500만원 이상
주식회사에프에스티	화성시 동탄산단6길	배송 납품 기사	1	주5일	시급 9,860원 이상
주식회사디알테크	화성시 마도면 석교남길	단순 제조 종사원(일부미용 절단)	1	주5일	월급 230만원 이상
(주)엘드몰리머	화성시 마도면 해운로	단순 제조 종사원(포장)	2	주5일	월급 250만원 이상
주식회사에스엔텍	화성시 마도면 송정로210번길	단순 제조 종사원(포장)	1	주5일	연봉 2,800만원 이상
대원종합가스	화성시 남양읍 현대71아로	배송 납품 기사(가스 배달)	1	주5일	월급 230만원 이상
(주)에스제이케이	화성시 봉담읍 최루백로	단순 제조 종사원(조립 검사)	2	주5일	시급 9,860원 이상
주식회사남양금속	화성시 봉담읍 덕우공단2길	단순 제조 종사원(조립)	2	주5일	월급 230만원 이상
오다금속주식회사	화성시 송산면 송산서로239번길	금속가공 기계 조직원(CNC)	2	주5일	시급 9,860원 이상
화성시근로자종합복지관	화성시 화성중앙로	건물 관리원	1	주5일	월급 310만원 이상
주식회사다운	화성시 동탄청계로	이마트 관리소장	1	주5일	월급 350만원 이상
주식회사정광기업	화성시 배양북길	특수 크리닝장비 청소원	1	주5일	월급 260만원 이상

양감면 Y.G 드론축구팀

전국 최강자 등극한 양감면 Y.G 드론축구팀

위기의 양감초등학교, 드론축구로 반전할 수 있을까?

2023년에는 총 10개의 전국 유소년 드론축구대회가 열렸다. 이 가운데 양감에 살고 있는 초등학생, 중학생으로 이루어진 Y.G 드론축구팀이 9개의 대회에서 1위를 차지해 유소년 드론축구의 최강자로 등극했다. 양감의 학부모들은 중심으로 2020년부터 준비한 끝에 2023년 6월에 창단한 신생팀이 올린 대단한 성적이다.

인구가 채 4000명이 안 되고, 2024년 2월 23일 기준 관내 3개교 학생수가 양감초 41명, 양감중 32명, 사창초 40명으로 총 113명밖에 안 되는 양감면에서 일어난 기적같은 일이다. 양감면은 농촌 지역의 특성상 지속적인 학

을 설명했다. 양감면에서는 실제 체육관에서 연습을 할 수 있게 배려해 주고, 주민자치회 사무실에서는 각종 공모사업, 참여예산 등의 사업을 통해 지원 했다. 학부모들은 자비로 장비를 구입하는 등 경비를 부담하고, 학생들은 방과 후, 주말, 방학 등 시간이 나는 대로 맹연습에 돌입했다.

그 결과 2022년 9월 경기남부지방배 유소년 스타드론축구대회에서 우승 및 개인전 1위를 차지한 것을 시작으로 2023년 6월에는 유소년 두 팀으로 'Y.G드림'이라는 드론축구팀을 정식 창단했다.

그냥 좋아서, 취미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의 위기를 막고자 하는 절대절명의 사명감을 가지고 창단한 열정들이 모든 학생들에게도 전달돼 창단 첫해에 유소년 절대 강자로 등장

기술 레저스포츠이다. 한 팀은 5대의 드론으로 구성되며 이 중 수비 3대, 공격 2대로 상대의 골대를 통과하여 득점할 수 있는 드론은 스트라이커로 지정된 한 대뿐이다. 다른 볼들은 수비 또는 득점을 돕기 위해 상대 수비를 쳐내는 역할을 하게 된다. 경기는 3세트 세트 득실로 진행되며 한 세트는 3분 동안 진행된다.

양감면 주민자치회는 지난 22일 양감면행정복지센터에서 양감면드론연습장 개관식 및 안전기원제를 열었다. 양감면주민자치회의 요청에 양감면(면장 강영목)이 화답해 Y.G드론축구팀의 연습장을 양감면행정복지센터 체육관 옆의 공터에 신설했다.

드론축구팀 학생들은 드론축구를 함으로써 평소 느끼지 못했던 집중력 있는 모습과 서로 간의 협동심이 향상된 모습을 보여주었다. 김재원 학생은 "매번 대회에 참가하면서 친구들과 함께해 즐겁고 시상대에 오를 때 성취감이 너무 좋았다"라고 말했다.



2023년 전국 유소년 드론축구의 최강자로 등극한 Y.G 드림팀.

생 수의 감소로 2020년 양감초 학년 간 합반 논의가 진행된 적이 있었다. 이에 학부모와 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 타 지역에 비해 부족한 문화, 예술 등의 체험 기회를 제공해 외부 학생들을 유입하자는 논의가 활발히 있었다.

예전에 양감면 주민자치회 회장은 "양감초등학교의 학생 수 감소로 4년 전 학년 간 합반이 논의된 적이 있었지요. 이때 양감면 주민자치회에서 양감초등학교의 학생 수를 늘려 나갈 수 있는 방법의 일환으로 청소년 특성화 프로그램을 기획해 '드론축구팀을 만들자'고 의견이 모아졌어요. 드론축구를 하고 싶은 어린이들이 전학을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젊은 학부모 위원들이 지도교사 자격증을 취득해 아이들을 가르쳤고, 2023년에는 유소년 2팀을 만들었습니다"라고 드론축구팀 창단 배경

하게 된 것이다. 드론축구는 전주 캡티브중합기술원이 전주시에 손잡고 2017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 드론과 축구를 결합해 박진감 넘치는 승부를 펼치면서도 창의력·코딩 개발 등 교육적 가치가 높아 남녀노소 모두에 인기가. 현재 국내에 드론축구 동호인 클럽 2000여개가 활동 중이며, 세계 120여개국에서 인기몰이 중이다.

지난 'CES 2024'에서는 메인 행사장 중 하나인 베네치안 엑스포홀에서 선보인 드론축구 코너가 최고 핫스팟으로 떠오르면서 유명 인사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세계적 미디어들도 앞다퉈 찾아 취재 경쟁을 벌이기도 했다.

드론축구는 완벽하게 보호된 드론볼을 이용해 공중에 원형으로 매달린 골대에 더 많은 득점을 한 팀이 이기게 되는 신개념 정보통신

김경숙 Y.G 드론축구팀 대표는 "현재까지 유소년 2팀을 운영하고 있지만 관련 드론부속 부품, 유지보수 등에 많은 경비가 든다"며 "올해 일반 1팀을 추가했으니 경비는 거의 배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모든 경비를 학부모들에게만 의존하다 보니 앞으로 이를 어떻게 지속해 나갈 것인지가 난감하다"고 걱정했다.

이에 발맞춰 당초 목적대로 양감초를 드론 특성화학교로 지정해 타 지역에서 드론 축구를 하고 싶은 학생들이 전학을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학교의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하다.

민병서 양감초·중학교 교장은 "정식적인 학교의 팀은 아니지만 할 수 있는 것은 적극 협조하고 있다"라며 "특성화학교 지정을 신청하는 것은 예산 확보와 전담 교사가 있어야 가능한 것으로 지역 사회에서 구체적인 논의가 되면 학교 내에서도 선생님들과 의견을 모아 보겠다"라고 말했다.

Y.G 드론 지원단을 구성한 박준남 양감면 기업인협의회 회장은 "양감기업인협의회와 양감면주민자치회, 양감초·중학교와 4월 중에 MOU 체결하고 양감초·중학교를 드론 관련 특성화 학교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각오를 밝혔다.

학년 간 합반이 논의될 정도로 학생수가 감소되고 있는 양감초등학교가 Y.G 드론축구팀으로 타 지역 학생들이 몰려올 수 있는 선망의 대상이 되는 학교로 변모할 수 있을지 지역 사회의 공론이 모아져야 할 때이다.

신호연 기자 news@ihnews.com

100 상상이 현실이 되는 백만화성

가동·이웃·화성사랑

가동·이웃·화성사랑

화성사랑회 창립 제24주년 기념

제14회 화성사랑 가요제

본선일시 | 2024년 4월 28일(일) 18:00

본선장소 | 용건릉 옆 정조효공원 광장

후원 | 화성시, 화성신문, 화성저널, 한국연예예술단

협찬 | 수원농협, 수원축협, 태안농협

예심안내 | 일시 | 2024년 4월 19일(금) 오후 1시
장소 | 용건릉 옆 정조효공원 광장

참가안내 | 참가 신청 | 2024년 4월 18일(목)까지 / 참가비 | 20,000원
신청 장소 | 화성사랑회 사무국 (문의 | 010-6399-4677)



초대가수 정미애(미스트롯)



초청가수 현 당



초청가수 정 도 원



초청가수 최 누 리



초청가수 정 도 원



초청가수 박 경 원

다원예술단

장구예술공연 디 아

신나는공연단